

韓國流通構造의 變化(1968~1979)

—都小賣業센서스를 중심으로—

金 元 銖

『目

次』

- | | |
|---------------------------------|-------------------------------|
| 1. 序 言 | (2) 性別 및 就業形態別 常時從事者數
의 推移 |
| 2. 店舗數의 推移 | (3) 業種別 1店當 常時從事者數의 推移 |
| (1) 總店舗數의 推移 | 4. 年間販賣額의 推移 |
| (2) 企業形態別 店舗數推移 | (1) 年間販賣額의 推移 |
| (3) 地域別 店舗數推移 | (2) 地域別 年間販賣額推移 |
| (4) 區市郡部別 店舗數推移 | (3) 業種別 年間販賣額推移 |
| (5) 主要都市別 店舗數推移 | (4) 常時從事者規模別 年間販賣額推移 |
| (6) 常時從事者規模別 店舗數推移 | 5. 販賣效率의 推移 |
| (7) 販賣額規模別 店舗數推移 | (1) 總販賣效率의 推移 |
| (8) 業種別 店舗數推移 | (2) 常時從事者規模別 販賣效率의 推移 |
| 3. 常時從事者數의 推移 | (3) 業種別 販賣效率의 推移 |
| (1) 常時從事者數 및 1店當 常時從事
者數의 推移 | (4) 商品回轉率의 推移 |

1. 序 言

本稿는 1968年, 1971年 및 1976년 3次에 걸쳐 실시된 都小賣業센서스 資料를 중심으로 분석한 韓國流通構造의 動態的 變化(1968~1976)¹⁾에 後續되는 것으로서 1968~1979년에 걸친 12年간의 流通構造의 變化推移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本分析에서는 4次에 걸쳐 실시한 都小賣業센서스의 자료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서 68~79년 간의 動態的推移를 파악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였으며, 資料는 주로 都小賣業센서스資料에 의존하였으므로 편의上 資料源表記는 생략하였고 이 이외의 資料를 이용한 경우에만 資料源을 別揭키로 하였다.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1) 拙稿「韓國流通構造의 動態的 變化(1968~1976)」，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經營論集，第XII卷，第4號，1978.12.，pp.52-101.

2. 店舗數의 推移

(1) 總店舗數의 推移

1979년도의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포함한 總店舗數는 605,083店인데 이는 3년전인 76년의 532,958店보다는 72,125店增이다. 76~79년간(이하 後期로 略稱)의 年平均店舗增加率은 4.5%로서 71~76년간(이하 中期로 略稱)의 경우보다는 0.8%가 높으나 68~71년간(이하 前期로 略稱)의 경우보다는 2.5%가 낮아서 前期보다는 增勢가 둔화되고 있다.

都小賣業과 飲食宿泊業의 구성을 보면, 79년의 총점포의 73.7%인 445,847店이 전자에 속하며 26.3%인 159,236店이 후자이다. 중기에 대비할 때, 전자는 구성비중이 4%減이나 반면 후자는 4%增이어서 流通產業中 流通周邊產業의 상대적인 증가가 엿보인다. 그런데 68년 이래의 年平均增加率면에서 볼 때, 전자의 경우는 전기의 7.2%로부터 증기의 4.6%를 거쳐 계속하여 낮아져서 후기에는 2.6%가 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전기의 6.4%에서 증기에는 1.0%로 낮아졌다가 후기에는 무려 11.3%로 그 增勢가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飲食業의 경우에는 12.9%나 되어서 外食產業의 店舗增設이 현저함을 엿볼수 있다.

產業中分類로 볼 때, 79년의 도소매업의 총점포수 445,847店은 76년의 413,911店보다 平均 2.6%가 증대된 31,936店增이다. 이중 도매업은 5.3%인 23,835店이며 소매업은 94.7%인 422,012店인데, 중기에 대비할 때 전자는 0.4%增이었으나 후자는 0.4%減이었다. 年平均增加率을 보면 도매업은 5.9%이어서 소매업의 2.4%보다 높다. 이에서 볼 때, 68년이후는 도매업의 증가세가 약간 강화하고 있음을 看取할수 있는데 이는 곧 都賣業의 상대적인 擴大推移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음식숙박업의 총점포수는 159,236店인데 이중 84.7%인 134,851店은 음식업이고 15.3%인 24,385店은 숙박업이다. 중기에 대비할 때 음식업의 비중은 3.0%增이고, 숙박업의 경우는 3.0%減이다. 그러나 68년이래로 年平均增加率에 의한 增加推移를 보면, 전자는 不安定하나 후자는 전기이래로 약간 鈍化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68년에서 79년에 걸친 店舗增加寄與率을 보면, 도소매업은 74.8%이며 음식숙박업은 25.1%이다. 이 중 소매업이 70.1%로서 店舗擴大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다음은 음식업의 18.0%, 숙박업의 7.1%의 순이며, 도매업의 경우가 가장 낮아 4.7%에 그치고 있다.

期別로 볼 때 도매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寄與勢를 나타내며, 반대로 소매업은 중기에 寄與勢가 높아졌다가 후기에는 39.3%로 낮아지고 있고, 숙박업도 비슷한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表 2-1〉 總店舗數의 推移

(단위 : 店・%)

年別 區分	店舗數				構成比			
	68	71	76	79	68	71	76	79
計	372,222	450,083	532,958	605,083	100.0	100.0	100.0	100.0
都小賣業	277,293	336,900	413,911	445,847	74.5	74.9	77.7	73.7
一般都賣業	13,193	16,429	20,260	23,835	(100.0)	(100.0)	(100.0)	(100.0)
小賣業	264,100	320,471	393,651	422,012	—	—	—	—
飲食・宿泊業	94,929	113,183	119,047	159,236	25.5	25.1	22.3	26.3
飲食業	83,262	97,053	97,271	134,851	(87.8)	(100.0)	(100.0)	(100.0)
宿泊業	11,667	16,130	21,776	24,385	(12.3)	(14.3)	(18.3)	(15.3)

年別 區分	構成比變化			年平均增減率		
	전기 71/68	증기 76/71	후기 79/76	전기 71/68	증기 76/71	후기 79/76
計	—	—	—	7.0	3.7	4.5
都小賣業	0.4	2.8	-4.0	7.2	4.6	2.6
一般都賣業	(0.1)	(0.0)	(0.5)	8.2	4.7	5.9
小賣業	(-0.1)	(0.0)	(0.5)	7.1	4.6	2.4
飲食・宿泊業	-0.4	-2.8	4.0	0.4	1.0	11.3
飲食業	(-2.0)	(-4.0)	(3.0)	5.5	0.04	12.9
宿泊業	(2.0)	(4.0)	(-3.0)	12.8	7.0	4.0

〈表 2-2〉 店舗增加率의 推移

區分	前期	中期	後期	79/68
總計	100.0	100.0	100.0	100.0
一般都賣業	4.2	4.6	5.0	4.7
小賣業	72.4	88.3	39.3	70.1
飲食業	17.7	0.3	52.1	18.0
宿泊業	5.7	6.8	3.6	7.1

그리나 飲食業의 경우, 전기에는 17.7%로 점포확대가 크게 이루어졌으나, 중기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0.3%밖에 되지 않았다가 후기에는 다시 52.1%로 급증하여 不安定한 擴大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都賣店當小賣店數는 79년에는 18.4店인데 이는 68년이래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상대적으
n 都賣業의 擴大推移를 반영하여주고 있다.

〈表 2-3〉 1都賣店當 小賣店數

年 別	1968	1971	1976	1979
都賣店當 小賣店數 (店)	20.0	19.5	19.4	18.4
倍 率 (倍)	1.000	0.975	0.970	0.920
指 數 (%)	100.0	97.5	97.0	92.0

(2) 企業形態別 店舗數推移

79년의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중 法人企業의 비중은 0.83%인데 이는 中期보다는 0.01%減이다. 그러나 年平均增加率면에서 볼 때, 中期이후는 法人化의 傾向이 강하게 나타나고

〈表 2-4〉 企業形態別 店舗數의 推移

(단위 : %)

業 態 區 分	法 人 企 業							年 平 均 增 減 率		
	構 成 比				% 變 化					
	68	71	76	79	71	76	79	전 기	증 기	후기
計	0.25	0.20	0.84	0.83	-0.05	0.64	-0.01	-2.1	81.6	3.6
都小賣業計	0.32	0.19	1.05	1.08	-0.13	0.86	0.03	-5.9	114.8	3.8
一般都賣業	4.18	1.72	12.62	7.81	-2.40	10.90	-4.81	-55.2	160.6	-9.1
小賣業	0.13	0.11	0.45	0.70	-0.02	0.34	0.25	1.01	78.7	22.4
飲食・宿泊業	0.04	0.21	0.11	0.13	0.17	-0.10	0.02	185.2	-8.7	20.3

業 態 區 分	個 人 企 業							年 平 均 增 減 率		
	構 成 比				% 變 化					
	68	71	76	79	71	76	79	전 기	증 기	후기
計	99.75	99.80	99.16	99.17	0.05	-0.64	0.01	7.0	3.5	4.5
都小賣業計	99.68	99.81	98.95	98.92	0.13	-0.86	-0.03	7.2	4.4	2.6
一般都賣業	95.82	98.28	87.38	92.19	2.46	-10.90	4.81	9.2	1.9	8.0
小賣業	99.87	99.89	99.55	99.30	0.02	-0.34	-0.25	7.1	4.9	2.3
飲食・宿泊業	99.96	99.79	99.89	99.87	-0.17	0.10	-0.02	6.3	1.1	11.2

註 : 79년의 경우 法人에는 準法人도 포함됨

〈表 2-5〉 企業形態別 店舗增加寄與率

業 態 區 分	法 人				個 人 企 業				79/68	
	전 기	증 기	후 기	79/68	전 기	증 기	후 기	79/68		
都賣業	-8.3	59.3	-19.4	31.7	108.3	40.7	119.4		68.3	
小賣業	0.01	1.9	4.2	5.4	99.99	98.1	95.8		94.6	
飲食・宿泊業	1.1	-1.8	0.2	0.8	58.9	101.8	99.8		99.2	

있다.

產業中分類로 볼 때, 일반도매업의 法人比重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7.8%이고, 소매업의 경우는 0.70%, 음식숙박업의 경우는 0.13%이어서 가장 낮다. 그런데 소매업의 경우에는 68년이래로 法人化의 傾向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도매업은 前期 및 後期에는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고, 比重면에서도 起伏이 심하다.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도 중기에는 감소하였으나 전·후기에는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小賣業과 飲食·宿泊業의 경우에는 個人企業의 比重이 99% 이상을 점하며 一般都賣業의 경우에도 92%臺를 占하고 있어서 流通產業의 法人企業化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示唆하여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都小賣業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3) 地域別 店舗數推移

79년의 一般都賣業의 地域別 比重을 보면, 서울이 가장 높아 44.4%이고 다음은 부산의 12.3%, 경북의 10.6%, 경기의 7.5%의 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濟州道의 0.7%이다. 서울의 경우엔 중기에 비해 무려 10.7%나 比重이 증대되어 서울에의 都賣集中의 현상이 엿보이며, 忠北의 0.4%增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모두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1.8%減이고 그 다음이 1.3%減의 경남이다.

68년이래로 전기엔 일단 비중이 감소하였다가 중기이후로 꾸준한 店舗增加推移를 나타내는 지역은 서울뿐이며, 전기엔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중기엔 증가하였다가 다시 후기에 감소한 지역은 부산, 강원 및 제주이며, 경기와 전남은 전·중기엔 증가하였으나 후기에 감소하고 있고, 후기엔 높아졌다가 중기에만 낮아진 지역은 충북이며, 경북과 경남은 전기에는 높아졌으나 중후기엔 감소하고 있으며, 전·중·후기에 걸쳐 계속하여 비중이 감소한 지역은 충남과 전북이다.

年平均增加率면에서 볼 때, 서울, 부산, 충남 및 전북은 68년이래로 꾸준한 增加推移를 가져 안정적인 都賣店舗의 伸長勢를 나타내는 반면, 경북은 중기에, 제주는 전·후기에 감소경향을 나타내며, 이 이외의 기타지역은 모두 전·중기에는 증가하였으나 후기에는 감소경향을 나타내어 不安定的이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都賣店舗의 增加패턴은 不安定의이고 流動의 樣相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79년의 소매업의 경우, 서울의 점포 비중이 가장 높아 23.8%이며 다음은 경북의 13.8%, 경기의 12.9%, 부산 9.1%, 전남 8.5%, 전북 8.4%의 순이며 제주가 가장 낮아 1.4%이다. 68년이래로 계속하여 비중이 높아진 지역은 경기이며, 서울은 전기에는 변동이 없고 중

기에는 높아졌다가 후기에는 낮아지고 있으며, 부산은 전기에는 변동이 없고 중기에 감소하였다가 후기에 증대하고 있고, 강원·충남 및 경북은 계속하여 비중이 낮아지다가 후기에 높아지고 있고, 경남과 제주는 전·후기엔 증대하였으나 중기에 감소하고 있고, 전남은 중기에 증대하였다가 전·후기엔 감소되고 있으며, 전북은 전기엔 낮아졌으나 그 이후 안정적이다. 이에 대해 충북은 전·중기에는 그 비중에 변화가 없다가 후기에 감소하고 있다.

〈表 2-6〉 地域別 店舗數推移

(단위 : 店, %)

地域別	一般都賣業									
	構成變化				%増減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9	71	76	79	71/68	76/71	79/76
計	13,193 100.0	16,429 100.0	20,260 100.0	23,835 100.0	—	—	—	8.2	4.7	5.9
서울특별시	31.3	31.0	33.7	44.4	-0.3	2.7	10.7	7.8	6.9	18.2
부산직할시	11.9	9.9	13.8	12.3	-2.0	3.9	-1.5	1.0	14.5	1.7
京畿道	7.2	7.7	9.0	7.5	0.5	1.3	-1.5	11.3	8.8	-0.8
江原道	5.4	4.8	5.2	3.4	-0.6	0.4	-1.8	3.6	7.0	-8.0
忠淸北道	2.9	3.1	2.7	2.3	0.2	-0.4	-0.4	10.8	1.6	-0.2
忠淸南道	7.6	6.3	5.2	4.5	-1.0	-1.1	-0.7	0.6	0.6	0.4
全羅北道	5.3	4.3	3.7	3.2	-1.0	-0.6	-0.5	0.5	1.1	1.2
全羅南道	6.6	6.7	7.0	5.8	0.1	0.3	-1.2	8.9	5.6	-0.4
慶尙北道	15.2	18.5	11.3	10.6	3.3	-7.2	-0.7	17.3	-4.9	3.6
慶尙南道	5.3	6.9	6.6	5.3	1.6	-0.3	-1.3	20.5	3.5	-2.0
濟州道	1.3	0.9	1.8	0.7	-0.4	0.9	-1.1	-5.1	27.9	-17.6
 小賣業										
地域別	構成變化				%増減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9	71	76	79	71/68	76/71	79/76
	264,100 100.0	320,471 100.0	393,651 100.0	422,012 100.0	—	—	—	7.1	4.6	2.4
서울특별시	24.7	24.7	25.4	23.8	0	0.7	-1.6	7.2	5.2	0.2
부산직할시	8.7	8.7	8.2	9.1	0	-0.5	0.9	7.0	3.4	6.1
京畿道	10.5	11.2	12.8	12.9	0.7	1.6	0.1	9.7	8.1	2.8
江原道	5.8	5.7	5.6	5.7	-0.1	-0.1	6.6	4.1	3.0	3.7
忠淸北道	3.7	3.7	3.7	3.5	0	0	-0.2	7.7	4.5	0.6
忠淸南道	7.5	7.2	7.1	7.2	-0.3	-0.1	0.1	5.0	4.2	3.3
全羅北道	6.0	5.6	5.6	5.6	-0.4	0	0.1	4.2	4.5	2.6
全羅南道	8.6	8.4	8.8	8.5	-0.2	0.4	-0.3	6.1	5.8	1.0
慶尙北道	15.1	14.9	13.4	13.8	-0.2	-1.5	0.4	6.4	2.1	3.5
慶尙南道	8.1	8.7	8.3	8.4	0.6	-0.4	0.1	9.7	3.5	3.1
濟州道	1.2	1.3	1.1	1.4	0.1	-0.2	0.3	10.1	1.7	10.3

〈表 2-7〉 地域別 店舗增加率與率

地 域	都 賣 業				小 賣 業			
	前 期	中 期	後 期	79/68	前 期	中 期	後 期	79/68
서 울	29.7	45.6	104.6	60.3	25.0	28.3	2.3	22.7
부 산	1.4	30.7	4.0	13.7	8.6	6.5	20.8	9.1
경 기	10.0	14.5	-1.3	9.1	14.3	19.7	14.8	20.2
강 원	2.4	7.2	-7.1	0.8	5.4	5.1	6.9	5.3
충 북	3.8	1.1	0.1	1.3	4.0	3.7	0.9	3.3
충 남	0.6	0.8	-0.4	0.4	5.4	6.6	9.7	6.2
전 북	0.3	1.0	0.8	0.4	3.6	5.5	6.0	4.4
전 남	7.2	8.0	-0.5	4.8	7.4	10.7	3.7	8.3
경 북	32.1	-19.6	6.9	3.4	13.6	6.8	19.3	10.0
경 남	13.3	5.2	-2.3	5.9	11.1	6.6	10.7	9.0
제 주	-0.8	5.5	-5.3	-0.1	1.7	0.5	4.8	1.6

〈表 2-8〉 市道別 人口 1,000人當 小賣店舗數 및 1店當人口數의 推移

市道別	人口 1,000人當 小賣店舗數(店)								1店當人口數(人)								
					地 域								增 減				
	68	71	76	79	71	76	79	68	71	76	79	71	76	79	71	76	79
平 均	9.0	10.2	11.3	11.3	1.2	1.1	0	110.5	97.9	88.2	88.5	-12.6	-9.7	0.3			
서울특별시	17.1	14.3	14.5	12.0	-2.8	0.2	-2.5	58.4	69.9	68.9	83.3	11.5	-1.0	14.4			
부산직할시	16.0	14.7	13.2	12.1	-1.3	-1.5	-1.1	62.4	67.8	75.6	82.6	5.4	7.8	7.0			
京畿道	8.9	10.7	12.4	11.0	1.8	1.7	-1.4	112.0	93.7	80.4	90.9	-18.3	-13.3	10.5			
江原道	8.4	9.9	11.9	13.5	1.5	2.0	1.6	119.4	101.5	84.1	74.1	-17.9	-17.4	-10.0			
忠清北道	6.3	8.1	9.6	10.4	1.8	1.5	0.8	159.8	124.0	104.1	96.2	-35.8	-19.9	-7.9			
忠清南道	6.9	8.0	9.4	10.3	1.1	1.4	0.9	145.8	124.7	106.0	97.1	-21.1	-18.7	-8.9			
全羅北道	6.3	7.3	8.9	10.3	1.0	1.6	1.4	158.9	136.1	112.2	97.1	-22.8	-23.9	-15.1			
全羅南道	5.6	6.7	8.7	9.5	1.1	2.0	0.8	177.4	148.5	114.5	105.0	-28.9	-34.0	-9.5			
慶尙北道	8.9	10.5	10.8	11.7	1.0	0.3	0.9	111.9	95.6	92.2	85.5	-16.3	-3.4	-6.7			
慶尙南道	6.8	8.9	9.9	10.7	2.1	1.0	0.8	147.8	112.5	100.6	93.4	-35.3	-11.9	-11.9			
濟州道	9.3	11.1	10.7	12.5	1.8	-0.4	1.8	107.9	90.0	93.1	79.9	-17.9	3.1	-13.2			

加率면에서는 모든 지역이 增加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小賣構造上으로는 꾸준한 擴大推移를 엿볼수 있으나 地域간에는 상당한 起伏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人口 1,000人當 店舗數는 79년에는 11.3店으로서 후기에는 변함이 없다. 68년이래로는 전기에 1.2店增, 중기에 1.1店增으로서 小賣施設의 增設動向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볼 때, 79년의 全國平均을 上廻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강원, 경북 및 제주이며, 나머지 지역은 이를 下廻하고 있는데 68년이래로 부산만이 계속하여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고, 서울은 전·후기엔 감소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중기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의增

加傾向은 人口增加를 上廻하는 店舖開設이 이루어졌음을 示唆하는 것이므로 후기에 감소경향을 나타낸 지역은 店舖增設의 鈍化 내지 이의 大型화의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의 逆數인 1店當人口數를 보면, 79년의 경우 전국평균은 88.5人인데 이는 중기보다 0.3人增이며 전기 및 중기엔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79년의 경우 전국평균을 下廻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강원, 경북 및 제주의 5개지역이며, 서울과 부산은 68년이래로 항상 全國平均을 下廻함으로써 小賣店의 大型화傾向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는 71년과 76년에는 전국평균을 下廻하였으나 68년과 79년에는 약간 上廻하고 있다.

68~79년 간의 地域別店舖增加寄與率을 보면 一般都賣業의 경우에는 서울이 60.3%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부산의 13.7%, 경기의 9.1%, 경남의 5.9%, 전남의 4.8%, 경북의 3.4%의 순이며, 負의 寄與를 한 지역은 제주의 -0.1%이고, 가장 낮은 寄與를 한 지역은 충남, 전북의 0.4%이며, 그 다음은 0.8%의 강원이다.

期別로 볼 때, 서울의 店舖增加寄與率은 계속하여 증가하여 후기에 이를수록 都賣集中率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期別로 보아 대체로 不安定的이다. 예컨대 전기에 기여율이 가장 높았던 경북은 중기에는 19.6%나 負의 寄與를 한 다음 후기에는 6.9%의 기여밖에 하지 못하고 있고, 중기에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기여율을 나타내었던 부산은 전기에는 1.4%, 후기에는 0.4%의 기여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都賣店舖構造上 지역별로 상당한 構造變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變動類型별로 보면 전·중·후기에 걸쳐 증가경향을 나타내는 지역은 서울, 부산, 충북 및 전북인데, 이중 충남과 전남은 기여율이 아주 낮아서 分散都賣가 중심임을 엿볼 수 있다. 전·중기엔 증대하였으나 후기에 負의 寄與를 한 지역은 경기, 강원, 충남, 전남 및 경남이며, 제주는 중기에만 증대하고 전·후기에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매업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이 正의 寄與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68~79년에 걸친 기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서 22.7%이며, 다음은 경기의 20.2%, 경북의 10.0%, 경남의 9.0%이고, 가장 낮은 기여율을 한 지역은 1.6%의 제주이며, 다음은 3.3%의 충북이다.

(4) 區市郡部別 店舖數推移

도매업의 경우 79년의 區市郡部別 店舖占有率을 보면, 區部가 99.9%이고 市部는 15.5%이며 郡部는 14.6% 이어서 大都市인 區部에는 집중율이 아주 높다. 68년이래로 區部는 54%臺에서 70%臺로 꾸준한 증대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市部는 71년에는 增加勢를 나타내었으

〈表 2-9〉 區市郡別 店舗數推移

(단위 : %)

區 分	一 般 都 賣 業								小 賣 業							
	構 成 比				年平均增減率				構 成 比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9	71/68	76/71	79/76		68	71	76	79	71/68	76/71	79/76	
全國計	100.0	100.0	100.0	100.0	8.2	4.7	5.9	100.0	100.0	100.0	100.0	7.1	4.6	2.4		
區 部	54.9	56.5	62.6	69.9	9.4	7.3	10.5	42.4	42.4	46.4	46.1	7.1	6.8	2.2		
市 部	22.9	24.0	18.7	15.5	10.1	-0.8	-0.9	18.5	18.3	16.4	17.4	6.7	2.0	4.6		
都市小計	—	—	81.3	85.4	9.6	4.9	7.9	61.0	—	62.8	63.5	7.0	6.1	2.8		
郡 部	22.2	19.5	18.7	14.6	3.2	3.6	-2.7	39.1	39.3	37.2	36.5	7.3	3.3	1.7		

〈表 2-10〉 區市郡別 店舗增減寄與率

區 分	一 般 都 賣 業				小 賣 業			
	전 기	중 기	후 기	79/68	전 기	중 기	후 기	79/68
區 部	63.0	88.9	111.4	91.4	42.4	63.8	42.0	56.2
市 部	28.4	-4.0	-3.0	4.6	17.4	7.8	31.9	13.6
郡 部	8.6	15.0	-8.4	4.0	40.1	28.4	26.1	30.2

나 그 이후로 비중이 계속 감소되어 79년에는 15%臺로 낮아지고 있고, 郡部도 68년의 22%臺에서 계속 비중이 낮아져서 79년에는 14%臺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年平均增加率면에서 볼 때, 各部 모두 중기까지는 店舗增加가 이루어져 왔으나, 후기에는 區部만이 10.5%로 증대되고 있고 市·郡部는 減少勢를 나타내고 있어 都賣의 大都市集中現象이 후기에 이르러深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매업의 경우 79년의 區部의 店舗比重은 46.1%이고, 市部는 17.4%, 郡部는 36.5%이며, 68년이래로 區部의 比重은 약 48%臺로 安定勢를 나타내며, 市部는 14%臺에서 17%臺로 그 비중이 높아진 반면 郡部는 39%臺에서 37%臺로 약간 낮아지고 있어서 대체로 安定의이다. 年平均增加率을 보면 增勢가 후기에 이를수록 鈍化되고 있는데, 市部는 4.6%增이며 區部는 2.2%增이고 郡部가 가장 낮아 1.7%增이다.

區市郡部別 寄與率을 보면, 도매업은 전기 및 중기에는 各部마다 어느 정도의 店舗增加에 寄與를 하였으나 後期에는 區部의 寄與率은 111.3%인데 반해 市部와 郡部는 오히려 負의 寄與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都賣業이 76년대까지는 地方擴散傾向을 가지다가 79년대로 접어들면서는 다시 大都市集中傾向이 강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各部마다 正의 寄與를 하고 있는데, 區部는 전기의 45.6%에서 중기에는 47.6%로 그 기여율이 높아졌으나 후기에는 41.9%로 낮아지고는 있으나 대체로 40%臺

의 寄與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市部의 寄與率은 전기의 10%臺에서 중기에는 20%臺로 높아졌다가 후기에는 30%臺의 寄與를 하고 있는 반면, 郡部는 전기의 40%臺에서 중기에는 30%臺弱의 수준밖에 寄與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소매업은 都市化의 경향을 반영하여 市部에서의 增設傾向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5) 主要都市別 店舗數推移

都賣業의 主要都市別 店舗分布를 보면, 79년의 경우 서울이 44.4%로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부산의 12.3%로서 兩大都市에의 都賣店舗의 集中度는 56.7%이다. 76년에 對比할 때 9.2%나 集中度가 높아지고 있다. 區部에 해당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및 大田 6大都市에의 集中度는 앞에서 보았듯이 7割臺에 이르고 있다. 이들 6大都市중 후기에 비중이 높아진 도시는 서울뿐이며 나머지 5個都市는 모두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서, 서울에의 都賣業集中率이 후기에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年平均增加率면에서 볼 때, 大邱와 대전만이 中期에 감소하고 있을 따름이고 나머지 모든 도시는 店舗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다.

79년의 경우 1.0% 이상을 점하는 도시는 1.6%의 마산, 1.1%의 전주 양도시뿐이고, 0.5% 이상을 점하는 도시로는 0.9%의 수원, 여수, 0.7%의 춘천, 청주, 진주, 울산, 0.6%의 포항, 0.5%의 안양, 원주, 충주, 군산, 목포 및 제주 등 15都市를 들 수 있다.

68년이래의 推移를 볼 때, 忠州만이 전기에 증가하였다가 중·후기에는 비중에 변동이 없어 地方都賣中心都市로서의 安定的 地位를 유지하고 있고, 마산, 여수, 진주 및 포항 등은 중기엔 감소하였으나 전·후기엔 증가하고 있어서 地方都賣據點都市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주, 청주, 목포 및 제주는 중기에만 비중이 높아지고 전·후기에는 낮아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春川은 전기에는 증가, 중기에는 감소하였다가 후기에는 比重에 변동이 없다. 水原은 전·중기에는 감소하였다가 후기에는 비중에 변동이 없이 安定化되고 있고, 울산은 전·중기엔 증가하였다가 후기에 감소하고 있고, 군산은 전기에는 증가하였다가 중·후기에는 감소하고 있고, 원주는 전기엔 변동이 없다가 중·후기엔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大都市周邊의 都市의 경우에는 交通網의 정비에 따라 점차 大都市에 都賣去來가 吸引되어 점차 地方都賣中心都市로서의 지위가 약화됨을 알 수 있다.

79년의 小賣店舗比率을 보면, 서울이 23.8%로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부산의 9.1%이다. 5%臺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로는 5.6%의 대구뿐이며, 인천은 3.4%, 광주는 2.3%이며 1%臺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로는 1.9%의 대전, 1.3%의 마산, 1.2%의 전주 및 1.0%의 울산이 있다. 0.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로는 0.9%臺의 수원, 성남, 청주, 목

포, 0.7%臺의 진주, 0.6%臺의 안양, 춘천, 군산, 포항, 제주, 0.5%臺의 부천, 원주, 이리, 여수 및 경주를 들 수 있고, 가장 낮은 도시는 新興工業都市인 창원의 0.1%이다.

區部에 해당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및 대전 6大都市의 比重은 46.1%이며 68년이래로 46%臺에 安定되고 있는데, 서울은 전·중기엔 증가하였으나 후기엔 감소하고 있고 부산은 전기엔 변동이 없다고 증기엔 감소한 다음 후기에는 0.9%나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는 전·중기엔 감소하다가 후기에는 0.3%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광주는 전기엔 감소하다가 중기에 증가한 다음 후기에는 변동이 없다. 인천은 전·중기엔 증대하다가 후기엔 변동이 없이 安定化되고 있고 대전은 전·후기엔 증가하고 중기에 변동이 없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전·중·후 3기간에 걸쳐 店舖占有比重上 변동이 없는 安定的인 消費都市로는 천안, 목포, 안동, 충무 및 삼천포를 들 수 있으며, 전·중기엔 변동이 없다가 후기에 증대하는 경향을 가진 도시는 제주이며,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 도시는 김천과 의정부이다. 전기에 증가하였으나 중·후기에 변동이 없는 도시는 수원이며, 전기에 감소하였다가 중·후기에 변동이 없는 도시는 충주, 이리, 경주 및 진주이고, 전·후기에는 변동이 없으나 중기에 감소한 도시는 군산 및 강릉이다.

이들 제 도시는 비교적 安定的 내지 停滯的인 소비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전·중·후기에 걸쳐 꾸준히 비중이 증가한 도시는 청주로 年平均 0.1%포인트의 比重增加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기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중·후기 이후로 꾸준한 比重 증가를 보인 도시는 포항이며, 대전은 전기에는 증가하였으나 중기에는 변동이 없다가 다시 후기에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중기에 증가하였다가 후기에 낮아진 도시는 서울이며, 변동이 없는 도시는 인천이다. 또한 전기엔 증가하였으나 중기에 감소한 다음 후기에 증대한 패턴을 가진 도시는 속초이며, 계속하여 감소한 도시는 여수이다. 전기에 변동이 없다가 중기에 증가한 다음 후기에 감소한 도시는 원주, 순천이며, 부산, 전주, 진해 등은 전기엔 변동이 없다가 중기에 감소한 다음 후기에 증가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기에 감소하였으나 중기에 증가하였다가 후기에 변동이 없는 도시는 광주이며, 반대로 감소한 도시는 춘천이며, 전·중기에는 감소하였다가 후기에 증가한 도시는 대구, 마산이다 (附表 I 참조).

68~79년에 걸친 主要都市別 店舖增減寄與率을 보면, 一般都賣業의 겨우 서울이 66.2%로서 가장 높으며 다음은 14.0%의 부산이다. 1%臺이 상의 기여를 한 都市로는 3.9%의 광주,

3.0%의 인천, 2.0%의 대구, 1.9%의 마산, 1.3%의 여수 및 1.0%의 忠州 및 全州를 들 수 있으며, 반면 負의 寄與를 한 도시로는 목포, 김천, 속초 및 천안이 있다.

變動類型별로 볼 때, 전·중·후기에 걸쳐 正의 寄與를 한 도시는 서울, 부산, 수원, 광주, 마산, 충주이며, 후기에 감소한 도시는 인천, 이리, 포항, 경주, 진해, 삼천포, 울산, 의정부이고, 중·후기에 계속하여 負의 寄與를 한 도시는 춘천, 원주, 순천, 강릉 및 군산이고, 중기애 감소하고 전·후기에는 증가한 도시는 대전, 천안, 여수, 대구, 안동, 진주, 충무 등이며, 전·후기엔 감소하였으나 중기애 증가한 도시는 속초, 제주이고, 전기에는 負의 기여를 하였으나 중·후기에 계속하여 正의 기여를 한 도시는 청주와 전주이며, 전·중·후기에 걸쳐 負의 寄與만 한 도시는 목포와 김천이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대체로 道路網의 발달에 따라 소매업의 경우에도 역시 서울의 寄與率이 가장 높아서 36.6%이며, 다음은 부산의 16.0%이고, 5%臺이상의 寄與를 한 도시는 인천 7.8%, 대구 6.3%이고, 1%臺 이상의 寄與를 한 도시는 4.1%의 광주, 3.7%의 대전, 2.8%의 울산, 2.2%의 마산, 2.1%의 전주, 2.0%의 청주, 1.8%의 수원, 1.4%의 포항, 1.3%의 제주, 1.1%의 진주 및 1.0%의 목포 등이다.

變動類型별로 볼 때, 대다수의 도시는 전·중·후기에 걸쳐 증대하는 安定的인 成長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강릉, 진해가 중기에 감소되었고, 후기에 감소한 도시는 의정부, 원주, 충주, 순천 및 김천 등이 있고, 춘천은 중기에 증가하였으나 전·후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附表 Ⅱ 참조).

(6) 常時從事者規模別 店舗數推移

상시 종사자 규모에 따른 店舗比重을 보면, 79년의 도매업의 경우 1~2人 규모의 比重이 38.1%로서 가장 높으나 76년에 대비하면 10.1%나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3~4人 규모는 32.7%로서 중기에 비해 3.3%增, 5~9人 규모는 21.1%로서 중기에 비해 6.8%增이며, 10人 이상은 8.1%로서 비중에 변화는 없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도매업의 規模의 擴大推移, 즉 大型化傾向을 살펴볼 수 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1~2人 규모가 압도적이어서 89.9%를 占하여 76년에 대비할 때 0.6%增이다. 68년이래로 전기에는 그 비중이 0.4%포인트가 낮아졌으나 중기에는 2.0%나 높아져서 小賣業의 零細化傾向이 더욱 強化됨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3~4人 규모는 8.2%로서 매기마다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5~9人 규모도 1.5%이어서 76년보다 0.1%增이다. 10人 이상 규모는 0.4%로서 변동이 없으나 68년이래로 꾸준한 增勢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곧 小賣店舗의 分極化傾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表 2-11〉 常時從事者規模別 店舗數推移

(단위 : %)

業種 規模	一般 都賣業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9	%	變化		71/68	76/71	79/76
1 ~ 2人	43.4	44.4	48.2	38.1	1.0	3.6	-10.1	9.1	6.8	-2.3
3 ~ 4人	36.9	37.4	29.4	32.7	0.5	-8.0	3.3	8.7	-0.6	10.2
5 ~ 9人	14.9	14.3	14.3	21.1	-0.6	0	6.8	6.5	4.7	24.8
10人이상	4.8	3.9	8.1	8.1	-0.9	4.2	0	0.3	31.4	5.7
(5.7) (2.4)										
計	100.0	100.0	100.0	100.0	-	-	-	8.2	4.7	5.9

業種 規模	小賣業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9	%	變化		71/68	76/71	79/76
1 ~ 2人	87.7	87.3	89.3	89.9	-0.4	2.0	0.6	6.9	5.1	2.6
3 ~ 4人	11.0	10.9	8.9	8.2	-0.1	-2.0	-0.7	6.7	-0.1	-0.4
5 ~ 9人	1.2	1.6	1.5	1.5	0.4	-0.2	0.1	23.6	1.9	4.2
10人이상	0.1	0.2	0.4	0.4	0.1	0.2	0	38.6	39.7	4.2
(0.3) (0.1)										
計	100.0	100.0	100.0	100.0	-	-	-	7.1	4.6	2.4

()는 10~19人 및 20人 이상 규모임.

〈表 2-12〉 從事者規模別 店舗增減寄與率

규모	일반도매업					소매업				
	전기	증기	후기	79/68		전기	증기	후기	79/68	
1 ~ 2人	48.5	64.3	-18.9	33.3		85.2	98.2	98.4	91.4	
3 ~ 4人	39.5	-4.9	50.9	20.7		10.5	-0.2	-1.5	2.6	
5 ~ 9人	11.8	14.2	60.1	26.4		3.9	0.7	2.6	2.6	
20人이상	0.2	26.3	7.9	19.6		0.4	1.3	0.6	3.4	
-	-	-	(--)	(0.04)		(--)	(--)	(--)	(--)	

68~79년에 걸친 從事者規模別 店舗增減寄與率을 보면, 일반도매업의 경우에는 1~2人의 영세 규모의 점포가 33.3%의 기여를 하여 그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26.4%의 5~9人 규모이고, 그 다음은 20.7%의 3~4人 규모이며, 20人 이상의 대규모도매업의 경우는 19.6%이다. 期別로 볼 때, 전기에는 1~2人 규모의 기여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3~4人 규모이며,

20人 이상의 대규모의 기여율은 아주 낮아서 0.2%에 지나지 않는다. 중기애 이르면 1~2人의 영세규모와 20人 이상의 규모의 기여율이 높아진 반면, 3~4人 규모는 負의 寄與를 하고 있다. 후기에 이르면 1~2人 규모는 負의 寄與를 하여 감소된 반면, 3~9人 규모의 기여가 현저하고, 20人 이상의 규모는 70.9%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후기에 이르러 都賣業의 規模擴大倾向을 엿볼 수 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1~2人의 영세규모의 소매점의 기여가 압도적이어서 91.4%를 점하며, 20人 이상의 대규모는 3.4%이고, 나머지 규모는 각각 2.6%의 기여를 하고 있다. 기별로 볼 때 1~2人 규모는 각기마다 압도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여도는 전기의 85.2%에서 점차 높아져 중기에는 98.4%, 후기에는 98.4%로 증대되고 있어 小賣業의 零細化倾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4人 규모는 전기의 10.5%에서 중기에는 0.2%, 후기에는 1.5%의 負의 기여를 하고 있어서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5~9人の 중규모는 3%대, 20人 이상 규모는 1%대미만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小賣構造의 分極化倾向을 나타내는 것이다.

(7) 販賣額規模別 店舖數推移

79년의 도매업의 販賣額規模別 店舖比重을 보면, 1천만원~5천만원미만의 규모가 가장 많아 37.1%를 점하며, 다음은 1억원이상~9억원미만이 27.0%이고, 그 다음은 5천만원~1억원미만 규모의 24.4%이다. 1억원 이상의 販賣規模를 가지는 도매업의 店舖比重은 29.1%에 이르는 데 68~79년간에 物價는 약 4.5倍 上昇하였으므로¹⁾ 79년의 1억원규모는 68년의 약 2천만원의 규모수준에 대응한다. 따라서 68년의 1천만원 이상의 규모의 점포비중 20.5%를 약 10%나 上廻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서도 68년이래로 都賣業의 大型化倾向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5천만원 미만의 규모의 점포비중이 가장 높아서 41.1%를 점하며, 다음은 500만원~1천만원미만 규모의 25.9%이며, 그 다음은 19.0%의 200만원~500만원미만 규모이다. 79년의 1천만원 이상의 店舖比重은 45.9%인데 68~79년간의 小賣物價指數도 약 4·5倍²⁾가 되므로 이는 68년의 약 200만원 규모에 해당되며, 68년의 200만원 이상의 규모의 점포비중은 9.4%밖에 되지 않으므로 小賣業의 경우에도 역시 大型化倾向이 있음을 알 수 있다(附表 Ⅱ 참조).

68~79년간의 販賣額規模別 店舖增減寄與率을 보면, 일반도매업의 경우 1~10억원미만 규모의 기여율이 가장 높아 54.6%이고 다음은 5천만원~1억원미만 규모로서 31.4%이다. 500

(1)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80.

(2) " "

〈表 2-13〉 年間販賣額 規模別 店舗比重(一般都賣業) (단위: 만원)

規 模 別	68	71	76	79
99.9 미만	21.1	8.5	2.5	0.3
100.0~999.9	58.3	56.8	28.3	9.2
1,000.0~9,999.9	18.7	30.7	52.5	61.5
10,000이상	1.8	3.9	16.7	29.1
計	100.0	100.0	100.0	100.0

〈표 2-14〉 年間販賣額 規模別 店舗比重(小賣業) (단위: 만원)

規 模 別	68	71	76	79
99.9 미만	(78.7)			
100.0~199.9	90.6	81.1	34.1	9.2
200.0~999.0	8.7	16.8	49.3	44.9
1,000 이상	0.7	2.1	16.6	45.9
計	100.0	100.0	100.0	100.0

〈表 2-15〉 販賣額規模別 店舗增減寄與率 (단위: 천원)

規 模	일 반 도 매 업				소 매 업			
	전 기	중 기	후 기	79/68	전 기	중 기	후 기	79/68
999미만	-42.7	-24.0	-11.8	-0.3	-53.2	-162.4	-165.4	-0.6
1,000~1,999	-2.1	-27.4	-25.8	-0.6	90.3	-9.9	-16.2	-0.1
2,000~4,999	14.9	-40.7	-44.0	-1.1	40.4	111.2	-148.4	4.5
5,000~9,999	37.6	-25.7	-29.7	-0.5	14.8	80.6	130.6	16.4
10,000~49,999	68.8	86.9	31.7	14.1	7.6	71.4	406.9	64.5
50,000~99,999	11.2	58.7	81.0	31.4	0.2	5.8	31.8	9.6
100,000~999,000	12.1	66.0	92.4	54.6	0.1	3.2	13.4	5.8
1,000,000이상	0.2	6.2	6.2	2.4	-0.2	0.01	0.4	0.0

만원이하의 규모는 負의 寄與를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인플레 때문이다. 기별로 볼 때, 전기에 기여율이 가장 높은 규모는 68.8%의 1천만~5천만원미만의 규모이며, 중기에는 역시 이 규모의 기여율이 가장 높아 86.9%이다. 그러나 후기에는 1억원~10억원미만 규모의 92.4%가 가장 높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1천만~5천만원미만의 규모가 가장 높아 64.5%이며, 다음은 500~1천만원미만규모의 16.4%이다. 기별로 보면 전기에는 100~200만원미만 규모가 가장 높아 90.3%이고, 중기에는 200~500만원미만 규모의 111.2%이고, 후기에는 1,000~5,000만원미만 규모의 406.9%이다.

(8) 業種別 店舗數推移

79년의 경우 業種別 都賣業의 비중을 보면 食品・飲料도매업이 가장 높아서 21.0%이며 다음은 14.4%의 衣類・裝身品도매업, 機械・器具도매업의 10.7%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업종은 3.8%의 건축재료도매업이다.

구성비면에서 보아 꾸준한 伸長勢를 보이는 업종은 家具・建具・什器도매업이며 전기엔 감소하였으나 중・후기에 증가하고 있는 업종은 鎳物・金屬材料도매업이며 전기에는 伸長勢를 보였으나 중기에 감소하였다가 후기에 증대한 업종은 섬유, 의류도매업 및 기계기구도매업을 들수 있으며 후기에도 계속하여 감소한 업종은 식품・음료도매업이다. 의약・화장품 및 화학제품도매업은 전・후기엔 감소하고 중기에 증대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농・축・수산물은 3期에 걸쳐 계속하여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年平均增加率면에서 볼때 기계기구, 건축재료 및 가구・전구・집기도매업은 계속하여 伸長勢를 나타내며 農・畜・水產物, 醫藥・化粧品 및 化學製品도매업은 전기엔 감소하였으나 중・후기에는 증가경향을 나타내며 섬유 및 의류도매업은 중기에 감소하였으나 전후기엔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광물 및 금속재료도매업은 전・중기엔 감소하였으나 후기엔 증가경향을 나타내며 반면에 식품・음료도매업은 전・중기에는 증가하였으나 후기엔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68~79년에 걸친 業種別 店舗增加寄與率을 보면 衣類・裝身具도매업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食品・飲料品도매업 및 機械器具도매업의 순이다.

소매업의 경우 79년의 業種別 店舗比重을 보면 食品・飲料品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52.3%를 점하며 다음이 織物・衣類・裝身具의 18.0%이다. 다음은 家具・建具・什器소매업의 5.8%, 의약・화장품소매업의 4.7%, 書籍・文房具소매업의 4.4%이고, 가장 낮은 업종은 각종 기기류 소매업의 2.5%이다. 一般零細店을 반영하는 其他雜品 小賣業은 9.3%이며, 대규모소매점을 반영하는 綜合小賣業은 0.2%이어서 그 비중이 아주 낮다.

구성비면에서 볼 때, 68년이래로 꾸준한 增加勢를 보이는 업종은 食品・飲料소매업이며 전・중기에 증대하였다가 후기에 비중이 감소한 업종은 연료・유류소매업이며, 織物・衣類・裝身具, 서적・문방구 및 가구・전구・집기의 3업종은 중기에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가 전기 및 후기엔 증대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종 기기소매업은 전・중기에 감소하였다가 후기엔 증대하고 있고 의약・화장품소매업은 계속하여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대규모소매업을 반영하는 종합소매업은 중기엔 증대하였으나 후기엔 변동이 없다.

年平均增加率면에서 볼 때, 식품・음료소매업은 계속하여 증가되고 있어서 擴大推移를 강

〈表 2-16〉 產業分類別 店舗數推移

(단위 : %)

產業分類	構成變化				年平均增減率			79/68		
	68	71	76	79	%	變化	71/68	76/71	79/76	寄與率
一般都賣業	100.0	100.0	100.0	100.0	—	—	—	8.2	4.7	5.9
纖維品都賣業	8.0	8.3	3.5	7.1	0.3	-4.8	3.6	9.8	-9.5	45.6
衣類·裝身具	11.1	18.5	6.3	14.4	7.7	-12.5	8.1	35.6	-11.6	56.5
農·畜·水產物	14.6	10.9	9.4	8.1	-3.7	-1.5	-1.3	-2.4	1.3	0.6
食品·飲料	26.9	28.8	25.7	21.0	1.6	-2.8	-4.7	11.0	2.0	-1.2
醫藥·化粧品	3.8	2.3	5.6	5.2	-1.5	3.3	-0.4	-8.0	39.7	2.8
化學製品	2.8	1.9	4.6	4.2	-0.9	2.7	-0.4	-4.5	39.9	1.9
鐵物·金屬材料	9.1	3.1	3.4	6.1	-6.0	0.3	2.7	-18.9	6.8	36.3
機械·器具	8.5	9.0	8.3	10.7	0.5	-0.7	2.4	10.5	2.8	17.5
建築材料	3.4	3.7	6.3	3.8	0.3	2.6	-2.5	12.8	21.9	-9.8
家具·建具·什器	2.3	2.3	2.9	4.4	0	0.6	1.5	8.2	11.6	25.4
其他雜品	9.6	11.2	23.9	15.0	1.7	12.7	-8.9	15.2	32.6	-8.7
小賣業	100.0	100.0	100.0	100.0	—	—	—	7.1	4.6	2.4
織物·衣類·裝身具	20.1	20.3	15.3	18.0	0.2	-5.0	2.7	7.6	-2.6	8.9
食品·飲料	48.9	50.4	50.5	52.3	1.5	0.1	1.8	8.4	4.6	3.7
醫藥·化粧品	6.1	5.2	4.9	4.7	-0.9	-0.3	-0.2	1.3	-2.9	1.2
書籍·文房具	4.0	4.5	3.6	4.4	0.5	-0.9	0.8	11.7	-0.2	9.8
各種機器類	5.8	5.4	1.9	2.5	-0.4	-3.5	0.6	4.6	-11.5	14.9
家具·建具·什器	6.1	5.2	3.7	5.8	0.9	-1.5	2.1	1.3	-2.5	23.0
燃料·油類	1.8	2.1	4.9	2.6	0.3	2.8	-1.3	13.4	37.1	-14.2
其他雜品類	7.1	6.7	15.0	9.3	-0.3	8.2	-5.7	4.8	34.9	11.1
綜合小賣業	—	—	0.2	0.2	—	—	0	—	—	5.1

하게 나타내고 있다. 후기에 年平均增加率이 감소경향을 나타낸 업종은 油類, 燃料소매업과 기타 잡품소매업이며 중기에 감소경향을 나타낸 업종은 치물·의류·장신품, 의약·화장품, 서적·문방구, 각종기기류, 가구·건구·집기등의 업종이다. 전기에 감소한 업종은 없다. 68~79년에 걸친 業種別 店舗增加寄與率을 보면, 食品·飲料가 가장 높아 58.0%이며, 다음은 織物·衣類·裝身品의 14.6%이며, 負의 寄與를 한 업종은 各種機器類이다.

產業細分類에 따른 79년의 業種別 店舗比重에 따른 順位를 보면, 도매업의 경우 1位는 14.3%의 식품류도매업인데 3년전인 76년에는 2位이었으나 1位인 酒類·飲料도매업보다는比重면에서 0.2%밖에 차이가 없어 대차가 없으며 8년전인 71년에는 역시 1位이었고 11년전인 68년에도 2位이어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位는 13.0%의 衣類도매업인데 68년 아래로 5位이내에 있다가 79년엔 9位는 낮아졌다가 다시 그 순위가 높아

〈表 2-17〉 業種別 店舗擴大推移寄與率

區 分	전 기	증 기	후 기	79/68
(都 賣 業)				
섬 유	9.5	-16.9	27.2	2.0
衣 類 · 裝 身 具	48.5	-46.1	60.3	7.9
農 · 畜 · 水 產	-4.2	2.9	1.0	0.1
食 品 · 飲 料	36.2	12.4	-5.3	9.9
의 약 · 花 般 품	-3.7	19.8	2.7	7.7
화 학 제 품	-1.5	16.4	1.5	7.6
광 물 · 금 속 재 료	-21.0	4.6	21.1	0.7
기 계 · 기 구	10.9	5.4	24.6	10.0
전 측 재 료	5.3	17.5	-10.5	6.2
가 구 · 전 구 · 집 기	2.2	5.7	12.7	6.8
기 타 잡 품	17.8	78.3	-35.4	41.1
(小 賣 業)				
織 物 · 衣 類 · 장 신 용	21.4	-7.0	56.6	9.3
식 음 료	57.6	51.4	77.2	50.8
의 약 花 般 품	1.1	3.4	2.5	1.6
서 적 문 방 구	6.7	-0.2	14.7	3.7
각 종 기 기 류	3.8	-13.8	11.7	-0.8
가 구 · 전 구 · 집 기	1.2	-2.9	35.5	2.8
연 료 · 유 류	3.4	17.4	-29.0	9.1
기 타 잡 품 류	4.8	51.8	-69.6	23.3
종 합 소 매 업	—	—	0.4	0.03

지고 있다. 3位는 機械·器具도매업인데 각 년도마다 5位이내에 있었으며, 4位는 鐵物類도 매업인데 이 업종은 68년의 20位에서 점차 順位가 높아지고 있다. 5位는 酒類·飲料도매업과 織物類도매업인데, 전자는 68및 76년엔 1位, 71년에는 2位이었으나 크게 순위가 낮아졌으며 직물도매업은 점차 그 順位가 높아져 5位가 되었다.

다음 소매업의 業種別 店舗比重에 따른 順位를 보면, 79년에는 食品소매업이 35.6%로서 1位인데 68년이래 순위에 변동이 없다. 2位는 11.5%의 衣類소매업인데 68년 및 71년에는 3位이었으나 76년에는 2位가 되어 79년에도 그 순위를 지키고 있다. 3位는 穀物소매업인데 68년에는 6位, 76년에는 4位가 되었다가 그 순위가 높아지고 있고, 4位는 4.4%의 家具·建具·什器소매업인데 68년의 13位에서 9位, 7位를 거쳐 순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5位는 4.3%의 醫藥品소매업인데 68년의 9位에서 76년에는 6位가 되었다가 5位로 그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附表 IV 참조).

68~79년의 業種別 店舗增減寄與率을 보면, 도매업의 경우에는 41.1%의 其他雜品도매업의 기여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10%의 기계기구 9.9%의 식품·음료이고 가장 낮은 寄與

를 한 업종은 農畜水產의 0.1%이다. 기별로 볼 때, 3期에 걸쳐 증가한 업종은 기계기구 섬유 및 衣類裝身業은 전·후기엔 正의 기여를 하였으나 중기에는 負의 기여를 하고 있고, 기타업종은 전기에는 負의 기여를 하였으나 중·후기에는 正의 기여를 하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식품·음료의 50.8%의 寄與率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기타 잡품류의 23.3%이며, 각종기기류는 0.8%의 負의 寄與를 하고 있고, 大型小賣店을 반영하는 종합소매업은 0.03%의 寄與를 하고 있다. 기별로 볼 때, 식품·음료 및 의약·화장품은 3期에 걸쳐 正의 寄與를 하고 있고, 전중기엔 正의 기여를 하였으나 후기에 負의 寄與를 한 업종은 연료·유류 및 기타 잡품류이며 나머지 업종은 모두 전·후기엔 증가하였으나 중기에는 負의 寄與를 하고 있다.

3. 常時從事者數의 推移

(1) 常時從事者數 및 1店當 常時從事者數의 推移

79년의 일반도매업 및 소매업에의 臨時 및 日雇를 제외한 常時從事者數는 866,957人이며 임시 및 일고를 포함한 總從事者數는 881,789人이다. 76년에는 상시종사자에 대한 통계가 없으므로 71년에 대비하면 41.5%增이며, 총 종사자의 경우는 76년에 대비할 때 12.0%增이다.

이중 일반도매업에 종사하는 상시종사자의 비중은 12.6%에 해당하는 109,519人으로서 이

〈表 3-1〉 從事者數의 推移

區 分	構 成 比				年平均增加率			寄 船 率			1店當平均從業員數				
	6 8	7 1	76 ³⁾	7 9	전기	중기	후기	前期	中期	後期	68/ 79	68	71	76	79
常時從事者 ¹⁾															
一般도매업	10.7	9.3	11.9	12.6	1.4	12.8	5.6	2.2	21.0	19.8	17.0	4.2	3.5	4.6	4.6
소 매 업	89.3	90.7	88.1	87.4	7.2	5.0	3.1	97.8	79.0	80.2	83.0	1.7	1.7	1.8	1.8
計	100.0 511,660	100.0 612,735	100.0 787,138	100.0 866,957	6.6	5.7	3.4	100	100	100					
總從事者 ²⁾															
一般도매업	11.1	9.5	11.9	13.2	0.5	10.5	8.2	1.0	22.4	24.2	17.7				
소 매 업	88.9	90.5	88.1	86.8	6.8	3.9	3.4	99.0	77.6	75.8	82.3				
計	100.0 542,666	100.0 642,523	100.0 782,138	100.0 881,789	6.1	4.5	4.0	100.0	100.0	100	100				

1) 自營業主, 無給家族從事者 및 常用雇傭員 포함

2) 上記者외에 臨時 및 日雇포함

3) 단 76년分은 臨時 및 日雇子분 불능

는 71년의 9.3%인 57,043人에 대비하면 3.3%增이다. 총 종사자의 76~79년간의 年平均增加率은 8.2%이며 68~79년간의 總從事員增減寄與率은 17.7%이다. 구성비면에서 상시종사자의 비중의 증가는 都賣店舗의 擴大推移에 대응하는 경향이라 할수 있다.

소매업에의 79년의 상시종사자의 就業比重은 87.4%에 해당하는 757,438人으로서 71년의 555,692人보다 36.3%增이며, 총종사자의 76~79년간의 年平均增加率는 3.4%이며 68~79년간의 총종사원증감기여율은 82.3%이다. 소매업의 종사자도 증가영향을 나타내나 구성비면에서 볼 때, 71년이래로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후기에는 1.3%減이다.

1店當當時從事者數는 도매업의 경우 79년에는 4.6人으로서 76년과 같다. 그러나 76년분에는 임시 및 일고종사자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확하지는 않다. 71년의 3.5人보다는 1.1人增이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79년에 1.8人인데 71년에 대비하면 0.1人增이다.

(2) 性別 및 就業形態別 常時從事者數의 推移

79년의 일반도매업에의 性別就業比重을 보면, 69.2%가 남자이고 30.8%가 여자인데, 68년대로 남자의 취업비중이 약 10%정도 낮아진 반면 여자는 증대되고 있다.

就業形態別로 보면, 79년의 일반도매업의 경우 65.2%가 常用雇傭員인데 남자의 비중이 여자보다 3.5%가 많다. 28.6%를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者로서 역시 남자가 1.7% 높다. 임시 및 日雇는 6.1%인데 여자의 就業比重이 5.2%나 높다. 68년이래로 볼 때, 일반도매업의

〈表 3-2〉 從事者構成推移

年度		一般 都賣業				小賣業			
區分		68	71	76	79	68	71	76	79
總計		60,394 100.0	61,349 100.0	93,679 100.0	116,609 100.0	482,272 100.0	581,174 100.0	693,459 100.0	765,180 100.0
性別	男	78.5	75.1	67.0	69.2	58.6	53.9	54.1	51.2
	女	21.5	24.9	33.0	30.8	41.4	46.1	45.9	48.8
就業形態	自家任業主(及族)	計 男 女	33.0 30.7 41.4	43.4 38.9 57.3	— — —	28.6 29.1 27.4	81.8 75.9 90.1	85.1 79.6 91.5	— — —
	常常用雇傭員	計 男 女	57.8 60.7 46.8	49.5 53.8 36.8	— — —	65.2 66.4 62.9	13.0 17.5 6.6	10.5 14.3 6.0	— — —
	臨時及日雇	計 男 女	9.3 8.6 11.8	7.0 7.4 5.9	— — —	6.1 4.5 9.7	5.3 6.7 3.3	4.4 6.1 2.4	— — —

경우 自營業主와 家族從事者 및 流動的 就業者인 일고 및 임시직의 就業比重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近代的 雇傭構造를 반영하는 常用雇傭員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어 近代的 流通就業構造가 점차 定着되어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소매업의 경우, 79년의 남자의 就業比重은 51.2%이고 여자는 48.8%이어서 양자의 就業比重差는 2.4%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곧 男女가 거의 같은 비중으로 小賣業에 종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68년에는 性別就業比重差가 17.2%나 되었으나 그 이후로 점차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女性의 小賣業에의 就業이 증대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취업형태별로 볼 때, 79년의 경우 自營業主 및 家族從事員이 84.3%이고 常用雇傭員은 14.7%에 지나지 않아 前近代的 就業構造를 반영하고 있고 68년이래로 거의 변동이 없는 셈이다. 性別로 보면 自營業主 및 가족종사원으로서의 취업비중은 여자가 더 높아 89.1%이며 남자는 79.8%이다. 68년이래로 이러한 취업비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常用雇傭員은 남자가 상대적으로 약간 많으나 68년이래로 여자의 就業比重이 6%臺에서 10%臺로 늘어나 상당한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임시 및 일고의 취업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3) 業種別 1店當 常時從事者數의 推移

店舗規模를 반영하는 1店當常時從事者數를 업종별로 보면 79년의 일반도매업은 경우 평균 4.6%이다. 이러한 평균규모를 上廻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9.3人の 의약·화장품인데 68년에 비하면 1.1人增이다. 다음은 7.5人の 화학제품으로서 68년에 비하면 1.9人增이다. 그 다음은 6.6人の 식품·음료로서 68년에 비하면 3.4人增이다. 그 다음은 5.7人の 건축재료, 5.2人の 鑛物·금속재료의 순이다. 가장 규모가 적은 업종은 2.9人の 衣類·裝身具 및 農·畜·水產物인데, 전자는 68년에는 4.0人이었다가 71년에는 2.9人으로 적어져서 그 이후 규모변동이 없으며, 후자는 68년에는 2.8人으로 이었다가 71년에는 2.5人으로 규모가 적어졌다가 79년에는 2.9人으로 규모가 약간 키지는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 79년의 평균규모 1.8人을 上廻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綜合小賣業으로서 7.1人이다. 68 및 71년에는 이 업종에 관한 통계가 없고 76년엔 종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한 규모는 12.4人이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食品·飲料만이 1.7人으로서 평균규모를 下廻하고 있고, 織物·衣類·裝身具 및 書籍·文房具가 평균규모와 같다. 평균 규모를 上廻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家·建具·什器 및 燃料·油類의 2.4人인데 양자는 모두 68년이래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가장 규모가 적은 식품·음료는 79년에 1.7人으로서 68 및 71년의 1.6人보다 0.1人 증가하고 있어서 10년내

〈표 3-3〉 業種別 一店當當時從事者數의 推移

業種	一般都賣業				業種	小賣業			
	68	71	76 ¹⁾	79		68	71	76 ¹⁾	79
計	4.2	3.5	4.6	4.6	計	1.7	1.7	1.8	1.8
一般用品	4.1	2.4	4.2	3.3	織物・衣類・裝身品	1.9	2.1	1.8	1.8
衣類・裝身具	4.0	2.9	3.9	2.9	食品・飲料	1.6	1.6	1.6	1.7
農・畜・水產物	2.8	2.5	3.1	2.9	醫藥・化粧品	1.6	1.7	1.9	1.9
食品・飲料	3.2	3.4	4.1	6.6	書籍・文房具	1.7	1.7	1.7	1.8
醫藥・化粧品	8.2	8.3	14.1	9.3	各種機器類	1.9	2.0	2.0	2.0
化學製品	5.6	4.2	3.7	7.5	家・建具・什器	1.9	2.1	2.2	2.4
鑄物・金屬材料	5.3	7.1	4.5	5.2	燃料・油類	1.8	2.2	1.9	2.4
機械・器具	5.9	3.5	4.6	4.9	其他雜品	1.8	2.0	1.8	2.0
建築材料	5.7	4.4	4.3	5.7	綜合小賣業	—	—	12.4	7.1
家・建具・什器	4.9	4.7	5.1	5.4					
其他雜品	3.7	3.5	4.0	3.5					

1) : 76년은 총 종업원임

큰 변동이 없다. 醫藥・化粧品은 68년 아래로 꾸준한 規模擴大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4. 年間販賣額의 推移

(1) 年間販賣額의 推移

1978년 7월 1일부터 1979년 6월 30일까지(이하 79년으로 略稱함)의 經常價格에 의한 年間流通去來額은 11兆 383億 9,300만원인데, 이 중 34.9%인 3兆 8,513억 4,300만원은 都賣去來額이며 65.1%인 7兆 1,870億 5천만은 小賣去來額이다.

79년의 都小賣去來額은 1975년 7월 1일~1976년 6월 30일까지(이하 76년으로 略稱)의 경우보다는 年平均 30.6%의 증가이며, 實質로는 연 9.9%增인데 이는 증기보다는 年率 20.5%나 증가세가 鈍化된 것이다. 이 중 도매거래액의 연평균증가율은 2.9%이며 소매거래액의 그것은 15.2%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두 전·증기에 대비해 增勢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도매거래액의 경우가 현저하다. 寄與率면에서 볼 때, 68~79년간의 도매거래액의 경우는 28.1%이며 소매거래액의 경우는 71.9%로서 도매거래의 상대적인 萎縮現象을 엿볼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후기에 현저한데 왜냐하면 전·증기에는 40%臺의 기여를 하고 있으나 후기에는 12.8%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流通迂回比率의 推移를 보면 점차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68년에는 77%이었다가 71년에는 약간 높아져 83%로 되었으나 그후 계속 감소하여 79년에는 56%의

〈表 4-1〉 年間販賣額의 推移

(단위 : 100만원)

區 分	年間販賣額(經常價格)				構成比推移			
	68	71	76	79	68	71	76	79
計	424,598	1,025,859	575,898	11,038,393	100.0	100.0	100.0	100.0
一般都賣業	181,194	417,901	2,448,663	3,851,343	42.7	40.7	42.5	34.9
小賣業	243,404	607,958	3,310,255	7,187,050	57.3	59.3	57.5	65.1
(實質價格)								
計	1,147,887	2,005,931	5,055,350	6,556,854	100.0	100.0	100.0	100.0
一般都賣業	500,536	914,444	2,184,356	2,375,906	43.6	45.6	43.2	36.2
小賣業	647,351	1,091,487	2,870,994	4,180,948	56.4	54.4	56.8	63.8
區 分	年平均增加率			寄與率				
	前	中	後	前	中	後	79/68	
計	47.2	92.3	30.6	100.0	100.0	100.0	100.0	100.0
一般都賣業	43.5	97.2	19.1	39.4	42.9	26.6	27.6	
小賣業	49.9	88.9	39.0	60.6	57.1	73.4	72.4	
計	24.9	30.4	9.9	100.0	100.0	100.0	100.0	100.0
一般都賣業	27.6	27.8	2.9	48.2	41.6	12.8	28.1	
小賣業	22.9	32.6	15.2	51.8	58.4	87.2	71.9	

註 1) 實質價格 중 일반도매업분은 1975년의 都賣物價指數를 기준으로 한 換算值임.

2) 實質價格 중 소매업분은 1975년의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를 기준으로 한 換算值임.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都賣去來比重의 減減倾向은 제조업자와 小賣商간의 逆去來와 機能中間商에 의한 去來의 比重의 증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商人中間商의 效率的 機能遂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2) 地域別 年間販賣額推移

79년의 地域別 年間販賣額比重을 보면, 도매의 경우 서울이 47.8%로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부산의 13.8%, 경북의 9.7%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의 0.5%이다. 68~79년간

〈表 4-2〉 流通迂回比率의 推移

年 度	流通迂回比率(經常)	// (實質)
6 8	0.74 (1.00)	0.77 (1.00)
7 1	0.68 (0.92)	0.83 (1.08)
7 6	0.73 (0.99)	0.76 (0.98)
7 9	0.53 (0.71)	0.56 (0.73)

의 寄與率면에서 볼 때, 역시 서울이 가장 높아 49.4%이며, 중기의 경우는 무려 61.2%이어서 中期에 있어서의 서울에의 都賣集中現象이 강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부산의 13.7%인데 전기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후기에는 17.5%로 높아지고 있고, 다음은 경북의 7.7%인데 전기와 후기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매업의 경우 79년의 판매액비중도 역시 서울이 가장 높아 30.5%이며, 다음은 경북의 13.0%, 그 다음은 서울周邊地域인 경기의 12.9%의 순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의 1.1%이다. 68~79년간의 기여율면에서 볼 때, 서울이 21.6%로서 가장 높은데 중기의 경우는 38.7%로서 가장 높다. 다음은 경기의 20.1%인데 후기에 그 비중이 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서울近郊의 都市化現象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은 경북의 10.4%인데 중기에 약간 낮아졌으나 후기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3) 業種別 年間販賣額推移

79년의 業種別 都賣去來額比率를 보면, 食品飲料가 29.4%로 가장 높고, 다음이 化學製品의 15.3%이며, 家・建具・化器가 가장 낮아 3.5%이다. 68~79년간의 기여율면에서 볼 때, 식품・음료의 39.9%가 가장 높으며 다음은 화학제품의 24.3%, 가・건구・집기의 6.1%의 순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1.2%의 농・축・수산물이다. 음・식료품은 전기에는 30%대의 기여를 하였으나 중기에는 20%대로 그 寄與比重이 낮아졌다가 후기에는 40%대의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는 分散都賣去來의 상대적인 安定相을 반영하는 것이다. 화학제품은 전기에는 負의 寄與를 하였고 중기에도 4.9%의 기여밖에 하지 못하였으나 후기에는 34.6%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工業化的 進展에 따른 產業都賣去來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매업의 경우, 79년의 구성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食生活關聯業種인 食・飲料 및 農・畜・水產物로서 36.3%를 점하며, 다음은 衣生活關聯業種인 직물・의류・장신품의 18.7%, 住生活關聯業種인 家・建具・什器의 12.2%의 순이며, 대규모소매업을 반영하는 総合小賣業은 1.4%에 지나지 않는다. 68~79년간의 寄與率면에서 볼 때, 식・음료・농축수산물의 32.9%가 가장 높으며, 다음은 연료・유류의 23.7%, 가・건구・집기의 16.8%의 순이며, 낮은 업종은 1.0%의 各種機器이다.

產業細分類에 따른 都賣業種別 年間販賣額構成上의 上位 5위의 順位를 보면, 79년에는 化學製品이 1위로서 15.3%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는 5위이내에 들지 못하였던 업종이다. 2위는 15.0%의 식품인데 76년에는 2위이었으나 그 이전엔 그렇지 않으며, 3위는 음료품의 14.4%인데 이는 71년과 76년에 각각 2위와 3위를 점하고 있어서 비교적 安定的인 업종임을 반영하고 있다. 4위는 6.8%의 鐵物인데 76년에는 5위이었다. 5위는 5.8%의 건축

〈表 4-3〉 地域別 販賣額推移

(단위 : 100만원 : %)

地域別	一般都賣業						寄與率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9	前	中	後	前	中	後	79/68
計	183,902	417,990	244,806	23,851, 343	42.4	97.2	19.1	100.0	100.0	100.0	100.0
서울	44.9	29.5	55.8	47.8	16.4	202.0	11.6	17.3	61.2	33.8	49.4
부산	13.5	10.4	11.7	13.8	25.0	111.7	28.6	8.0	12.0	17.5	13.7
경기	4.2	4.9	4.3	5.9	55.1	84.5	37.6	5.4	4.2	8.5	8.1
강원	4.3	3.0	2.2	2.3	20.5	65.9	22.0	2.1	2.0	2.5	1.2
충북	1.7	3.8	1.7	2.1	135.9	33.7	28.5	5.5	1.3	2.6	2.4
충남	4.6	8.6	4.8	4.7	106.6	45.2	18.4	11.7	4.0	4.6	4.6
전북	4.6	5.2	3.2	2.6	52.1	52.9	8.8	5.6	2.8	1.5	1.4
전남	6.4	6.9	5.5	6.1	47.7	74.4	24.6	7.2	5.3	7.1	5.6
경북	11.8	21.6	6.6	9.7	105.1	15.7	44.3	29.3	3.5	15.3	7.7
경남	3.5	5.6	3.3	4.4	87.4	49.8	37.0	7.2	2.8	6.4	5.5
제주	0.6	0.7	0.8	0.5	63.2	111.5	1.3	0.8	0.8	0.10	0.5
小賣業											
地域別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寄與率				
	68	71	76	79	前	中	後	前	中	後	79/68
	243,404	607,958	3,360,7187, 255	050	49.9	88.9	39.0	100.0	100.0	100.0	100.0
서울	39.6	34.8	38.0	30.5	39.9	98.7	24.8	31.6	38.7	24.1	21.6
부산	9.4	10.9	10.4	10.7	63.0	84.8	41.1	11.8	10.4	11.0	11.5
경기	7.8	9.1	9.1	12.9	63.7	88.2	69.5	10.0	9.1	16.2	20.1
강원	3.6	3.9	3.5	4.3	56.9	77.6	54.2	4.1	3.4	4.9	4.7
충북	2.4	3.5	2.8	3.4	89.5	66.6	55.1	4.2	2.6	3.9	4.6
충남	6.0	5.5	6.0	6.5	43.1	97.5	45.9	5.2	6.1	7.0	6.6
전북	4.4	6.1	4.1	4.7	82.3	54.2	49.3	7.2	3.7	5.2	4.7
전남	6.6	7.3	6.3	6.6	58.9	74.0	42.7	3.8	6.1	6.9	6.2
경북	15.0	13.3	9.6	13.0	40.1	59.0	64.7	12.1	8.8	15.9	10.4
경남	4.4	4.9	8.9	6.2	59.1	177.2	17.3	5.2	9.8	3.9	8.3
제주	0.7	0.7	1.3	1.1	42.1	184.7	26.9	0.6	1.4	0.9	1.4

재료인데 71년과 76년에는 각각 1位를 점하였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식품류의 19.3%가 1位인데 68년에는 4位, 71년에는 9位이었으나 76년에는 1位이었다. 2位는 2.2%의 가·건구·잡기인데 그 이전엔 5位이내에 들지 못하였다. 3位는 기계기구의 10.9%인데 68·71년에는 1位, 76년에는 4位로서 계속하여 5位이내에 들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종이다. 4位는 연료·유류로서 9.1%인데 68년의 12位를 제외하고는 5位이내에 들고 있으며, 5位는 穀物로서 6.8%인데 71년에는 13位이었으나 68·76

〈表 4-4〉 業種別 年間販賣額推移

(단위 : 100만원, %)

業種別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寄與率			
	1968	1971	1876	1979	前期	中期	後期	前期	中期	後期	79/68
一般都賣業	181,194	417,901	2,448,663	3,851,343	43.5	97.2	19.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織維品	8.3	11.9	5.3	4.4	77.8	32.0	10.4	14.8	3.9	2.9	1.5
衣類·裝身具	5.3	6.6	4.5	6.0	62.5	59.6	36.8	7.7	4.1	8.7	4.5
農·畜·水產物	17.2	7.2	6.5	5.9	-1.1	85.6	14.5	-0.4	6.4	4.9	1.2
食品·飲料	14.4	28.5	23.1	29.4	119.1	74.9	33.5	39.3	21.9	40.4	39.9
醫藥·化粧品	7.7	5.6	5.6	5.5	22.5	98.1	17.9	4.0	5.6	5.3	2.5
化學製品	6.5	1.3	4.3	15.3	-17.5	362.6	152.6	-2.6	4.9	34.6	24.3
鑄物·鐵物·金屬材料	16.8	11.9	4.5	6.8	20.8	24.8	45.3	8.1	3.0	10.8	1.7
機械·器具	11.4	3.7	9.9	8.7	-8.4	295.5	12.4	-2.2	11.2	6.5	4.2
建築材料	6.6	16.5	12.2	5.8	158.2	66.3	-8.4	24.1	11.3	-5.3	3.3
家具·建具·什器	1.3	2.9	2.7	3.5	136.0	88.7	34.3	4.1	2.7	4.8	6.1
其他都賣業	4.4	3.8	21.3	8.6	31.9	641.2	-12.2	3.3	24.9	-13.6	11.0
小賣業	243,404	607,958	3,310,255	7,187,050	49.9	88.9	39.0	100.0	100.0	100.0	100.0
織物·衣類·裝身具	25.7	22.7	14.6	18.7	40.5	49.9	59.2	20.8	13.3	22.1	11.2
農·畜·水產物	33.8	37.3	37.6	36.3	58.4	89.7	36.6	39.6	39.3	35.2	32.9
食品·飲料	6.7	6.5	8.5	6.2	47.3	122.7	19.4	6.3	9.3	4.2	4.8
醫藥·化粧品	2.8	2.7	2.3	3.0	45.3	72.8	61.5	2.6	2.3	3.6	2.7
書籍·文房具	3.0	4.4	11.3	9.1	88.8	261.7	24.6	5.3	13.4	7.1	23.7
燃料·油類	8.6	10.2	2.3	3.4	65.5	4.6	72.5	11.2	0.5	4.3	1.0
各種機器	7.5	7.0	6.6	12.2	44.2	82.6	100.5	6.6	6.8	16.9	16.8
家具·建具·什器	11.9	9.3	13.4	9.8	31.5	137.8	19.6	7.5	15.0	6.8	6.8
綜合小賣業	—	—	3.4	1.4	—	—	-3.2	—	—	-0.3	-0.01

년에는 5位이내에 들고 있다(附表 V 참조).

(4) 常時從事者規模別 年間販賣額推移

상시 종업원 규모에 따른 도매업의 연간 판매액의 비중을 보면, 79년의 경우 10人 이상의 규모가 51.5%를 占하며, 다음은 5~9人 규모의 23.1%, 그 다음이 3~4人 규모의 15.7%로서 대규모기업군의 販賣額比重이 높다. 69~79년 간의 規模別 寄與率을 보면, 역시 10人 이상의 규모의 61.0%가 가장 높으며, 다음은 23.5%의 5~9人 규모, 10.0%의 3~4人 규모 및 5.5%의 1~2人 규모로 되어 있다. 전기에는 대체로 4개의 규모군이 비슷한 기여를 하였으나 증기 이후로는 10人 이상 규모의 기여율이 50%대를 上廻하여 都賣業의 規模擴大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1~2人 규모의 구성비중이 가장 높아 62.5%이며, 다음은 3~4人 규모

〈表 4-5〉 常時從事者規模別 年間販賣額推移

從業員 規 模	一般 都賣業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寄與率			
	68	71	76*	79	71/68	76/71	79/76	前	中	後	79/68
計	100.0	100.0	100.0	100.0	43.5	97.2	19.1	100.0	100.0	100.0	100.0
1 ~ 2人	15.3	19.1	13.5	9.7	62.8	62.6	14.8	22.1	12.3	3.0	5.5
3 ~ 4人	22.5	26.1	16.9	15.7	55.8	55.7	15.5	28.8	15.0	13.7	10.0
5 ~ 9人	21.3	25.2	21.9	23.1	57.7	81.7	22.1	28.2	21.2	25.3	23.5
10人이상	40.9	29.5	47.7	51.5	22.2	169.4	23.2	20.1	51.5	58.1	61.0

從業員 規 模	小賣業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寄與率			
	68	71	76	79	71/68	76/71	79/76	前	中	後	79/68
計	100.0	100.0	100.0	100.0	49.9	88.9	39.0	100.0	100.0	100.0	100.0
1 ~ 2人	64.6	71.5	64.5	62.5	58.9	78.3	36.8	76.2	63.0	60.8	54.3
3 ~ 4人	24.7	20.0	18.8	17.2	34.2	82.6	32.9	16.9	18.6	15.9	10.7
5 ~ 9人	6.0	5.6	8.2	10.3	44.3	139.1	58.2	5.3	8.8	12.2	16.2
10人이상	4.8	2.9	8.5	9.9	17.3	298.1	51.3	1.7	9.7	11.1	18.9

*76년 분은 日雇包含分임.

의 17.2%, 5~9人 규모가 10.3%, 10人 이상 규모가 9.9%로서 대규모군의 판매액 절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小賣業에는 零細規模의 사업체가 많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68~79년간의 기여율면에서 볼 때에는 역시 1~2人 규모의 영세규모의 그것이 가장 높아 54.3%이며, 다음은 10人이상 규모의 18.9%, 5~9人 규모의 16.2%, 3~4人 규모의 10.7%의 순이다. 이는 아직도 分極的 小規模店이 지배적인 소매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점차 小賣流通構造의 分極化現象이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왜냐하면 期別寄與率을 볼 때, 1~2人の 영세규모는 전기에는 76.2%이었다가 점차 낮아져 50%대로 되었고, 반면 5~9人 및 10人 이상의 대규모군은 전기에는 각각 5.3%와 1.7%의 낮은 기여밖에 하지 못하였으나 중기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小賣規模構造에도 점차 規模擴大의 傾向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5. 販賣效率의 推移

(1) 總販賣效率의 推移

都賣業의 경우 1店當年間販賣額을 보면, 79년의 경우 經常으로는 1億 6,158만 3천 원인데

이는 76년의 1億 2,086만 1천원보다 年平均 11.2%增이다. 그러나 實質로 보면 79년은 9,968만 1천원이어서 76년의 1억 781만 6천원보다 2.1%減이어서 후기에는 都賣去來額의 減少現象이 엿보인다. 68년을 기준으로 할 때, 1店當販賣效率은 76년까지 높아지다가 79년에는 감소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는 후기에서의 都賣의 상대적인 萎縮때문이다.

1人當販賣額을 보면, 79년의 경우 經常으로 3,516만 5천원으로서 76년의 2,613만 8천원보다 11.5%增이다. 그러나 實質로 보면 79년에는 2,169만 4천원으로서 76년의 2,331만 7천원보다 2.3%減이다. 더구나 76년의 1人當販賣額은 日雇를 포함한 總 從業員當販賣額임을 감안한다면 實質的인 감소폭은 더욱 크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都賣業의 經營效率은 68년 이후로 76년까지는 개선되어 왔으나 후기에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小賣業의 경우 79년의 1店當販賣額은 經常으로 1,703만원인데 이는 76년의 840만 9천원보다는 34.2%增이다. 그러나 實質로 볼 때, 79년의 그것은 990만 7천원으로서 이는 76년의 729만 3천원보다 11.9%增이다. 68년이래로 소매업의 1店當販賣額은 약 3倍의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1人當販賣額을 보면, 經常으로는 948만 8천원으로서 76년의 477만 3천원보다 年平均 32.9%나 증대하고 있으나, 實質로 보면 79년은 551만 9천원으로서 이는 76년의 414만원을 年平均 11.1% 증가하고 있다. 68년에 대비할 때, 79년은 약 3倍가 되는 販賣效率을 나타내는 셈이나 도매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6년이 低率化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2) 常時從事者規模別 販賣效率의 推移

〈表 5-1〉 販賣效率의 推移

(단위 : 천원)

區分	一般 都賣業					小賣業						
	一店當		一人當			一店當		一人當				
	販賣額	年平均增減率	指現	販賣額	年平均增加率	指數	販賣額	年平均增加率	指數	販賣額	年平均增加率	指數
(經常)												
68	13,734	—	100.0	3,306	—	100.0	921	—	100.0	532	—	100.0
71	25,436	28.4	185.2	7,326	40.5	221.6	1,897	35.3	205.8	1,094	35.1	205.4
76	120,861	75.0	880.0	*26,138	85.6	790.5	8,409	114.4	912.4	*4,773	112.1	896.0
79	161,583	11.2	1,176.5	35,165	11.5	1,063.5	17,030	34.2	1,847.8	9,488	32.9	1,781.0
(實質)**												
68	37,939	—	100.0	9,134	—	100.0	2,451	—	100.0	1,416	—	100.0
71	55,660	15.6	146.7	16,030	25.2	175.5	3,405	13.0	138.9	1,964	12.9	138.6
76	107,816	31.2	284.2	23,317	*15.2	255.3	7,293	38.0	297.5	*4,140	36.9	292.2
79	99,681	-2.5	262.7	21,694	-2.3	237.5	9,907	11.9	404.2	5,519	11.1	389.6

* 단 76년분은 日雇包含分에 의한 것임

** 實質換算基準은 〈表 4-1〉의 註와 같음

1店當販賣額에 따른 79년의 평균효율과 規模別 隔差比率을 보면, 1~2人 규모는 약 30%, 3~4人 규모는 약 50%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 평균효율보다 낮고, 5~9人 규모는 1.1倍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10人 이상의 대규모만이 6.3倍라는 높은 效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서 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1店當販賣效率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大型化에 따라 去來吸引 規模가 커지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68년이래로 계속하여 이와 같은 경향을 看取할 수 있는데 대체로 5~9人 규모에서 平均效率을 넘어서고 있다. 기별로 販賣效率의 증감추이를 보면 전·중기에는 5~9人 규모가 가장 높았으나, 후기에는 10人 이상의 규모가 가장 높으며, 5~9人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후기에 이르러 規模의 效果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想定된다.

1人當販賣額을 기준으로 한 79년의 도매업의 規模別 隔差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1~2人 및 3~4人 규모는 평균효율의 70%대의 수준에 있는 반면, 5~9人 규모로 90% 수준 10人 이상규모도 평균보다 약 40% 정도가 높을 따름이다. 따라서 최하규모와 최대규모간의 效率隔差는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期別效率推移를 볼 때, 5~9人 규모는 전·중기엔 증대하였으나 후기엔 감소하고 있고, 1~2人 및 3~4人 규모는 전·중기엔 증가율이 높았으나 후기엔 伸張勢가 크게 鈍化되고 있어서 10人 이하의 규모군은 후기에 이르러 效率의 增勢가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후기에 이를수록 도매업의 效率은 規模의 利益을 반영하는 듯이 보인다.

다음 79년의 小賣業의 경우 1店當販賣額에 의한 規模別 販賣效率隔差를 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 1~2人 규모는 평균수준의 70%의 수준밖에 되지 않으나, 3~4人 규모는 2.1倍, 5~9人 규모는 6.7倍인데, 10人 이상의 규모는 무려 26.1배나 된다. 期別 效率推移를 보면 10人 이상 규모만이 전기에 감소하였을뿐 모두 增大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1人當販賣額에 따른 販賣效率隔差를 보면 1~2人 규모는 평균수준의 80%의 수준이며 10人이상 규모는 2.6倍 이어서 1店當販賣額과 같은 큰 격차는 없다. 效率推移도 전자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附表 VII 참조).

(3) 業種別 販賣效率의 推移

1店當販賣額에 따른 79년의 都賣業의 業種別 效率隔差를 보면, 가장 높은 業種은 화학제 품의 5억 9,442만 4천원으로서 평균효율보다 3.67倍의 수준이고, 다음은 건축재료의 1.5倍, 식품·음료의 1.4倍의 수준이다. 가장 낮은 업종은 40%의 수준에 있는 衣類·裝身具의 6,789만원이다. 期別로 效率의 추이를 볼 때, 전중기엔 증대하였으나 후기에 감소한 업종은 섬유, 의류·장신구, 건축재료 및 기타의 4업종이고, 전기엔 감소하였으나 중·후기에 증가

한 업종은 화학제품이고, 중기에만 증가하고 전·후기에 감소한 업종은 기계기구이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

1人當販賣額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販賣效率이 가장 높은 업종은 평균효율의 2.4倍의 수준에 있는 화학제품도매업의 7,974만 8천원이고, 다음은 1.3배의 수준인 건축재료이다. 가장 낮은 업종은 의약·화장품의 60% 수준의 1,835만 1천원이다. 기별로 효율의 추이를 보면, 섬유, 광물·금속 및 기타의 3업종은 전증기엔 증대하였으나 후기에 감소하고 있고, 화학제품은 전기엔 감소하였으나 중·후기에 증대하고 있고, 기계기구는 전·후기에 감소하고 증기·증대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계속하여 증대하고 있다.

다음 1店當販賣額에 따른 소매업의 79년의 業種別 販賣效率을 보면, 평균효율의 3.4倍 수준의 연료·유류의 5,832만원이 가장 높고, 다음은 2.1倍 수준의 가·건구·집기이다. 종합소매업은 8.0倍의 수준에 있다. 가장 낮은 업종은 70%의 수준에 있는 의복·직물·장신구 및 서적·문구의 두 업종이다. 期別 效率의 추이를 보면, 모든 業種이 각기마다 증가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1人當販賣額에 따르면, 연료·유류가 가장 높아 평균효율보다 2.6倍의 수준인, 2,395만 2천 원이며, 다음은 1.6倍의 수준인 가·건구·집기이다. 종합소매업은 2.0倍의 수준인 1,900만 8천원의 수준에 있다. 가장 낮은 업종은 70%의 수준에 있는 서적·문구의 645만원이다. 期別 效率의 推移도 1店當販賣額의 경우와 같이 각기에 걸쳐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小賣業의 販賣效率의 지속적인 증대는 消費의 안정적인 伸長에 힘입은 小賣業의 成長推移를 나타내는 것이다(附表 VII 참조).

(4) 商品回轉率의 推移

도매업의 경우 79년의 商品回轉率은 19.8回轉인데 그 推移를 보면 전기에는 8.6回轉增이 나 중기에는 2.0回轉減이며, 후기에는 변화가 없다. 업종별로 볼 때, 상품회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농축수산물의 73.1回轉이고, 다음은 화학제품의 59.0회전, 음·식료품의 43.6회전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9.8회전의 건축재료 및 9.9회전의 의약·화장품이다. 期別로 增減推移를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업종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變動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전·증기에 증가하였으나 후기에 감소한 업종은 기계기구 및 기타의 2업종이며, 전·후기에는 증가하였으나 증기에 감소한 업종은 식품·음료, 의류·장신구 및 가·건구·집기의 3업종이며, 전기에 증가하고 중·후기에 감소한 업종은 의약·화장품, 섬유, 광물·금속 및 건축재료의 4업종이며, 전·증기에 감소하고 후기에 증가한 업종은 농·축·수산품 및 화학제품의 2업종이다. 소매업의 경우 79년의 상품회전율은 4.4회전인데 이는 76년의 14.3회전보

〈表 5-2〉 業種別 商品回轉率

(단위 : 회)

業種別	商品回轉率					増減		
	68	71	76	79	増減			
					前期	中期	後期	
一般都賣業	13.2	21.8	19.8	19.8	8.6	-2.0	0	
農・畜・水產物	52.3	36.7	24.3	73.1	-15.6	-12.4	48.8	
飲・食料品	16.6	38.9	35.6	43.6	22.3	-3.3	8.0	
醫藥・化粧品	8.5	13.7	12.2	9.9	5.2	-1.5	-2.3	
化學製品	15.5	11.1	5.9	59.0	-4.4	-5.2	53.1	
纖維品	8.2	21.8	17.9	12.9	13.6	-3.9	-5.0	
衣類・裝身具	9.1	12.5	12.4	15.9	3.4	-0.1	3.5	
鑄物・金屬材料	12.9	29.4	14.7	10.5	16.5	-14.7	-4.2	
機械器具	12.0	5.8	19.5	11.2	-6.2	13.7	-8.3	
建築材料	12.9	36.2	25.6	9.8	23.3	-10.6	-15.8	
家具・建具・什器	8.9	19.6	8.5	10.6	10.7	11.1	2.1	
其他都賣業	7.9	9.2	31.5	21.0	1.3	22.3	-10.5	
小賣業	5.6	9.5	14.8	4.4	3.9	5.3	-10.4	
農・畜・水產物	7.9	18.7	27.3	2.6	10.8	8.6	-24.7	
飲・食料品	5.6	7.0	12.7	7.4	1.4	5.7	-5.3	
醫藥・化粧品	4.7	8.0	9.7	4.7	3.3	1.7	-5.0	
衣類・裝身具	4.2	3.6	9.2	7.6	-0.6	5.6	-1.6	
機械器具	9.3	14.5	10.1	9.6	5.2	-4.4	-0.5	
書籍・文房具	5.0	6.1	8.9	5.8	1.1	2.8	-3.1	
燃料・油類	19.1	20.5	47.0	49.4	1.4	26.5	2.4	
其他小賣業	3.8	6.4	9.2	8.5	2.7	2.8	-0.7	
綜合小賣業	—	—	10.1	9.2	—	—	0.9	

다는 10.4회전減이다. 전·중기에는 각각 3.9회전 및 5.3회전으로 증대되었으나 후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연료·유류의 49.4회전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9.6회전의 기계기구, 9.2회전의 종합소매업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농축수산·음식품의 2.6회전이다. 期別增減推移를 볼 때, 연료·유류업종만이 전·중후기에 걸쳐 회전율이 높아지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變動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기계기구업종은 전기에는 증가하였으나 중·후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며, 가·건구·집기업은 전·후기에 감소하고 중기에는 증가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전·중기에는 증가하였으나 후기에는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소매업의 경우에는 연료·유류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상품회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店, %)

<附表 I> 都市別 店舗數의 推移

都市別	一般 都 賣 業						小鋪 賣 數						構成比變化						年平均增減率		
	店舗數			構成比變化			年平均增減率			店舗			舖數								
	68	71	76	79	71	76	79	71/68	76/71	79/76	68	71	76	79	71	76	79	71/68	76/71	79/76	
全國	100.0	100.0	100.0	100.0	-	-	-	-	-	-	-100.0	100.0	100.0	-	-	-	-	-	-	-	
全 13,193	16,429	20,260	23,835	-	-	-	-	5.9	4.7	5.9	264,320,393,422,651,012	-	-	-	-	-	-	-	-	-	
서 울 市	31.3	31.0	33.7	44.4	-0.3	2.7	10.7	7.8	6.9	18.2	24.7	24.7	25.4	23.8	0.3	0.7	-1.6	7.2	5.2	0.2	
釜 山 市	11.9	9.9	13.8	12.3	-2.0	3.9	-1.5	1.0	14.5	1.7	8.7	8.2	9.1	0	-0.5	0.9	7.0	3.4	6.1		
大 邱 市	9.8	12.6	6.5	6.3	2.8	-6.1	-0.2	20.2	-7.4	4.6	6.6	6.2	5.3	5.6	-0.4	-0.9	0.3	5.0	0.8	4.4	
仁 川 市	1.9	3.0	3.5	2.3	1.1	0.5	-1.2	32.7	9.1	8.4	2.5	2.8	3.4	3.4	0.3	0.6	0	11.9	9.5	2.1	
光 州 市	1.8	1.7	2.5	2.4	-0.1	0.8	-0.1	6.3	16.5	6.5	2.1	1.9	2.3	2.2	-0.2	0.4	0	4.4	8.7	3.2	
大 田 市	3.7	3.3	2.6	2.2	-0.4	-0.7	-0.4	4.1	-1.1	0.1	1.7	1.8	1.8	1.9	0.1	0	0.1	7.7	5.9	4.2	
水 原 市	1.1	1.0	0.9	0.9	-0.1	-0.1	0	4.0	2.9	5.9	0.8	0.9	0.9	0.9	0.1	0	0	12.0	4.7	2.8	
議 政 市	0.3	0.2	0.3	0.3	-0.1	0.1	0	1.0	17.8	-1.5	0.5	0.5	0.5	0.4	0	0	-0.1	6.0	4.9	-0.1	
城 南 市	-	-	0.5	0.4	-	-0.1	-	-	0.3	-	-	-	0.8	0.9	-	-	0.1	-	-	7.1	
安 義 市	-	-	0.4	0.5	-	-0.1	-	-	9.3	-	-	-	0.6	0.6	-	-	0	-	-	6.1	
富 川 市	-	-	0.2	0.3	-	-0.1	-	-	20.0	-	-	-	0.4	0.5	-	-	0.1	-	-	13.0	
春 川 市	0.8	0.9	0.7	0.7	0.1	-0.2	0	13.8	-1.1	9.6	0.7	0.6	0.6	0.6	-0.1	0.1	-0.1	-0.4	6.5	-0.4	
原 州 市	0.8	0.8	0.6	0.5	0	-0.2	-0.1	8.0	-0.8	-2.2	0.5	0.5	0.6	0.5	0	0.1	-0.1	2.6	10.6	-2.0	
江 琼 市	0.4	0.6	0.4	0.3	0.2	-0.2	-0.1	34.6	-4.2	-3.6	0.4	0.4	0.3	0.3	0	-0.1	0	4.8	-0.5	9.0	
束 草 市	0.5	0.3	0.6	0.2	0.3	-0.4	-6.2	23.4	-21.4	0.3	0.4	0.3	0.3	0.3	0.1	-0.1	0	9.4	2.3	2.1	
清 州 市	1.3	0.8	1.0	0.7	-0.5	0.2	-0.3	-6.3	10.6	-5.0	0.6	0.7	0.8	0.9	0.1	0.1	0.1	11.4	8.7	4.3	

都市別	一般都賣業												小賣業							年平均增減率					
	店舖數				構成比變化				年平均增減率				店舖數			構成比變化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9	71	76	79	71	68	76	79	71	76	79	71	76	79	71/68	76/71	79/76					
忠州市	0.2	0.5	0.5	0.5	0.3	0	0	0	78.2	1.1	13.0	0.5	0.4	0.4	0.4	-0.1	0	0	5.6	5.2	-0.8				
安東市	0.8	0.9	0.5	0.4	0.1	-0.4	-0.1	16.7	-7.1	0.3	0.4	0.4	0.4	0.4	0.4	0	0	0	6.7	3.3	4.6				
州里市	1.3	1.0	1.2	1.1	-0.3	0.2	-0.1	-2.5	10.2	4.1	1.1	1.1	1.0	1.2	0	-0.1	0.2	0	6.6	3.7	6.5				
群全市	0.6	0.5	0.5	0.3	-0.1	0	-0.2	13.1	-3.2	-2.9	0.7	0.7	0.6	0.6	0	-0.1	0	7.4	1.4	0.7					
浦羣市	1.3	0.5	0.8	0.5	-0.8	0.3	-0.3	-0.3	-1.9	-1.2	-6.1	0.9	0.9	0.7	0.8	0	0	0	8.3	0.3	4.2				
水羣市	0.7	1.0	0.7	0.9	0.3	-0.3	0.2	31.8	-2.8	15.3	0.6	0.7	0.6	0.5	0.1	-0.1	-0.1	14.3	0.9	0.2					
天裡市	0.4	0.7	0.5	0.3	0.3	-0.2	-0.2	45.1	-1.8	-6.8	0.3	0.3	0.4	0.3	0	0.1	-0.1	14.2	13.9	-7.5					
連木市	0.7	1.1	1.0	1.0	0.6	0.4	-0.1	0.4	29.4	3.4	-8.5	0.4	0.4	0.5	0.5	0.6	0	0.1	0.1	12.0	9.9	3.5			
慶項市	0.3	0.4	0.3	0.3	0.1	-0.1	0	13.3	2.2	-2.4	0.6	0.5	0.5	0.5	0.5	-0.1	0	0	0	5.1	1.8	3.7			
順豐市	0.7	0.5	0.3	0.2	-0.2	-0.2	-0.1	-0.4	-6.8	-2.3	0.4	0.4	0.3	0	0	-0.1	0	0	6.8	3.4	-0.9				
浦慶市	0.7	0.5	0.3	0.2	-0.2	-0.2	-0.1	-0.4	-6.8	-2.3	0.4	0.4	0.3	0	0	-0.1	0	0	8.9	4.9	2.6				
豐金安市	0.4	0.6	0.4	0.4	0.2	-0.2	0	21.4	-2.0	7.2	0.4	0.4	0.4	0.4	0.4	0	0	0	0	0	-	-	-	-	-
東龜安市	-	-	-	-	-	-	-	-	-	-	-	-	-	-	-	-	-	-	-	-	-	-	-	-	-
尾金安市	1.4	1.7	1.5	1.6	0.3	-0.2	0.1	18.0	1.2	8.6	1.2	1.0	1.0	1.1	1.3	-0.2	-0.1	0.2	1.4	6.8	6.7				
山馬市	0.6	1.0	0.6	0.7	0.4	-0.4	0.1	37.0	-6.5	11.9	0.8	0.7	0.7	0.7	-0.1	0	0	3.2	3.1	7.3					
州晉市	0.4	0.4	0.3	0.3	0	-0.1	0	14.0	-3.7	5.7	0.3	0.3	0.3	0.3	0	0	0	0.9	8.6	1.0					
忠武市	0.2	0.4	0.5	0.3	0.2	0.1	-0.2	63.9	9.1	-11.4	0.5	0.5	0.3	0.4	0	-0.2	0.1	6.6	-4.1	9.2					
鎮海市	0.3	0.3	0.3	0.2	0	-0.1	0.9	0.8	-5.1	0.2	0.2	0.2	0.2	0.2	0	0	0	8.6	1.5	4.9					
三千浦市	0.6	0.7	1.6	0.7	0.1	0.9	-0.9	17.7	33.6	-14.7	0.6	0.7	1.0	1.0	0.1	0.3	0	13.8	12.4	4.8					
萬山原市	-	-	-	-	-	-	-	-	-	-	-	-	-	-	-	-	-	-	-	-	-	-	-	-	-
濟州市	0.8	0.6	1.2	0.5	-4.2	0.6	-0.7	-1.5	27.0	-17.5	0.5	0.5	0.5	0.6	0	0	0.1	10.2	2.4	11.7					
市小計	17.4	19.0	18.7	15.5	1.6	-0.3	-3.2	11.8	4.4	-0.9	14.7	14.6	16.4	17.4	-0.1	1.8	1.0	6.9	7.5	4.6					
都部計	77.8	80.5	81.3	85.4	-2.7	0.8	4.1	9.6	4.9	7.9	61.0	60.7	62.8	63.4	-0.3	2.1	0.7	7.0	6.1	2.8					
部都計	22.2	19.5	18.7	14.7	-2.7	-0.8	-4.2	3.2	3.6	-2.7	39.0	39.2	37.2	36.5	0.2	-2.0	-0.7	7.3	3.3	1.7					

〈附表 II〉 主要都市別 店舗増減率與率

都市別	一般都賣業				小賣業			
	전기	증기	후기	79/68	전기	증기	후기	79/68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32.5	57.6	98.2	66.2	41.8	45.2	3.5	36.6
부산	1.6	38.8	3.7	14.0	14.3	10.3	31.1	16.0
인천	8.3	7.4	-4.8	3.0	7.0	9.4	4.5	7.8
수원	0.6	0.8	0.8	0.7	2.2	1.5	1.5	1.8
성남	—	—	0.02	0.001	—	—	3.4	—
의정부	0.03	1.1	-0.10	0.30	0.7	0.8	-0.04	0.6
안양	—	—	0.6	0.01	—	—	2.1	—
부천	—	—	1.0	0.0	—	—	2.9	—
춘천	1.4	-0.3	-0.2	0.7	-0.1	1.3	-0.2	0.6
원주	0.8	-0.2	-0.2	0.1	0.3	1.7	-0.7	0.8
강릉	1.8	-0.7	-0.2	0.2	0.4	-0.1	1.6	0.4
속초	-0.4	2.0	-1.9	-0.2	0.7	0.3	0.4	0.5
청주	-1.0	2.3	0.8	0.1	1.7	2.1	2.2	2.0
충주	2.1	0.2	0.9	1.0	0.6	0.8	-0.2	0.5
대전	2.0	-1.0	0.02	0.3	3.1	3.6	4.9	3.7
천안	1.8	-1.8	0.02	-0.02	0.7	0.5	1.2	0.7
전주	-0.4	2.0	0.8	1.0	1.7	1.4	4.2	2.1
군산	1.6	-0.9	-0.3	0.1	1.2	0.3	0.3	0.6
이리	0.01	0.8	-0.4	0.1	0.5	1.1	0.9	0.9
광주	1.5	7.5	2.6	3.9	2.1	5.9	2.9	4.1
목포	-0.3	-0.3	-0.7	-0.5	1.7	0.1	2.0	1.0
여수	2.8	-0.8	1.8	1.3	1.9	0.2	0.1	0.8
순천	2.2	-0.3	-0.6	0.3	0.9	1.6	-2.1	0.7
대구	26.5	-25.4	4.8	2.0	7.7	1.7	14.3	6.3
포항	2.8	1.0	-1.4	0.6	1.1	1.6	1.2	1.4
경주	0.6	0.2	-0.1	0.2	0.7	0.3	1.1	0.6
김천	-0.03	-1.0	-0.1	-0.4	0.6	0.4	-0.2	0.4
안동	1.2	-0.3	0.5	0.5	0.8	0.7	0.7	0.7
마산	3.3	0.6	2.0	1.9	0.4	2.4	4.5	2.2
진주	3.0	-1.8	1.1	0.8	0.6	0.8	3.0	1.1
충무	0.7	-0.4	0.3	0.2	0.1	0.9	0.2	0.5
진해	1.6	1.1	-0.9	0.4	0.8	-0.7	1.9	0.3
삼천포	0.4	0.1	-0.2	0.1	0.5	0.1	0.7	0.4
울산	1.4	6.5	-3.7	1.0	2.1	3.2	2.9	2.8
제주	-0.2	4.6	-3.3	0.1	1.2	0.4	3.5	1.3
구미	—	—	—	0.01	—	—	—	—
창원	—	—	—	0.01	—	—	—	—

〈附表 III〉 年間販賣額規模別 店舗數의 推移

(단위 : 1,000원)

販賣規模別	一般都賣業									
	店舗數				構成比變化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9	71	76	79	71/68	76/71	79/76
計	13,193 (100.0)	16,429 (100.0)	20,260 (100.0)	23,835 (100.0)	—	—	—	8.2	4.7	5.9
999 미만	2,787 (21.1)	1,406 (8.6)	487 (2.4)	64 (0.3)	-12.6	-6.0	-2.2	-16.5	-13.1	-29.0
1,000~1,999	2,200 (16.6)	2,133 (13.0)	1,083 (5.3)	162 (0.7)	-3.6	-7.7	-4.6	-1.0	-9.8	-28.3
2,000~4,999	3,347 (25.4)	3,829 (23.3)	2,271 (11.2)	698 (2.9)	-2.1	-12.1	-8.3	4.8	-8.1	-23.1
5,000~9,999	2,153 (16.3)	3,371 (20.5)	2,385 (11.8)	1,324 (5.6)	4.2	-8.7	-6.2	18.9	-5.8	-14.8
10,000~49,999	2,164 (16.4)	4,390 (26.7)	7,720 (38.1)	8,852 (37.1)	10.3	11.4	-1.0	34.3	15.2	4.9
50,000~99,999	301 (2.3)	663 (4.0)	2,911 (14.4)	5,808 (24.4)	1.7	10.4	10.0	40.1	67.8	33.2
100,000~999,999	210 (1.6)	601 (3.7)	3,130 (15.4)	6,434 (27.0)	2.1	11.7	11.6	62.1	84.2	35.2
1,000,000 이상	31 (0.2)	36 (0.2)	273 (1.3)	493 (2.1)	0	1.1	0.8	5.4	131.7	26.9
販賣規模別	小賣業									
	店舗數				構成比變化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9	71	76	79	71/68	76/71	79/76
計	264,100 (100.0)	320,471 (100.0)	393,651 (100.0)	422,012 (100.0)	—	—	—	7.1	4.6	2.4
999 미만	207,728 (78.7)	177,744 (55.5)	58,916 (15.0)	12,007 (2.9)	-23.3	-40.4	-12.2	-4.8	-13.4	-26.5
1,000~1,999	31,528 (11.9)	82,404 (25.7)	75,171 (19.1)	27,177 (6.4)	13.8	-6.6	-12.7	53.8	-1.8	-21.3
2,000~4,999	18,050 (6.8)	40,802 (12.7)	122,208 (31.0)	80,129 (19.0)	5.9	18.3	12.0	42.0	39.9	-11.5
5,000~9,999	4,921 (1.9)	13,265 (4.1)	72,212 (18.3)	109,238 (25.9)	2.2	14.2	7.5	56.5	88.9	17.1
10,000~49,999	1,659 (0.6)	5,967 (1.9)	58,205 (14.8)	173,604 (41.1)	1.3	12.9	26.3	86.6	175.1	66.1
50,000~99,999	66 (0.02)	202 (0.06)	4,429 (1.1)	13,436 (3.2)	0.04	1.04	2.1	68.7	418.5	67.6
100,000~999,999	28 (0.01)	71 (0.02)	2,431 (0.6)	6,240 (1.5)	0.01	0.58	0.9	51.2	664.8	52.2
1,000,000 이상	120 (0.04)	16 —	79 (0.02)	181 (0.04)	-0.05	0.02	0.02	-28.9	78.8	43.0

註 : ()는 構成比임.

〈附表 IV〉 產業細分類에 따른 業種別 店舗數構成比率(順位)

產業細分類	一般都賣店舗數構成比率(順位)			
	1968	1971	1976	1979
酒類・飲料	9.3 (1)	10.6 (2)	12.4 (1)	5.0 (5)
食 品	7.5 (2)	14.1 (1)	12.2 (2)	14.3 (1)
穀 物	5.3 (3)	3.4 (9)	2.7 (11)	1.3 (15)
衣 類	5.1 (4)	8.4 (3)	3.9 (9)	13.0 (2)
機 械	4.1 (5)	5.8 (4)	7.7 (3)	8.7 (3)
清潔涼飲	3.8 (6)	4.7 (6)	1.2 (17)	1.7 (13)
織物	3.8 (7)	1.1 (23)	4.7 (6)	7.1 (5)
海 產	3.8 (8)	2.3 (15)	3.4 (10)	1.6 (14)
蔬 菜	3.5 (9)	1.9 (18)	2.7 (12)	4.8 (6)
化 學	3.4 (10)	2.4 (14)	4.6 (7)	4.2 (7)
建 築	3.2 (11)	5.1 (5)	6.3 (4)	3.8 (8)
燃 料	3.1 (12)	2.0 (17)	—	—
調 味	1.8 (13)	2.2 (16)	—	—
紙 製	1.8 (14)	1.8 (19)	2.6 (13)	2.5 (11)
家 具	1.7 (15)	2.8 (11)	0.4 (19)	0.6 (17)
輸 送	1.3 (17)	3.1 (10)	1.9 (14)	3.7 (9)
裝 雜	1.2 (18)	2.7 (12)	—	—
醫 藥	1.2 (19)	1.6 (21)	1.8 (15)	1.7 (12)
鐵 物	1.2 (20)	4.2 (8)	4.7 (5)	8.1 (4)
雪 金	1.1 (21)	2.6 (13)	—	—
化 粧	1.0 (22)	1.7 (20)	1.3 (16)	1.2 (16)
家 禽	1.0 (23)	1.6 (22)	3.8 (18)	3.5 (10)
畜 物	0.2 (24)	1.0 (24)	0.6 (18)	0.4 (18)
帶 物	0.2 (25)	0.5 (25)	0.2 (20)	0.2 (19)
產業細分類	小賣業店舗數構成比率(順位)			
	1968	1971	1976	1979
食 品	24.2 (1)	33.9 (1)	34.2 (1)	35.6 (1)
飲 料	16.4 (2)	12.8 (2)	5.9 (5)	4.0 (6)
衣 類	6.5 (3)	12.0 (3)	7.6 (2)	11.5 (2)
野 菜	4.8 (4)	(食品類에 包含)	1.4 (14)	2.9 (9)
文 房	4.7 (5)	(書籍에 包含)	2.9 (8)	3.5 (7)
穀 產	4.3 (6)	(食品類에 包含)	6.0 (4)	5.1 (3)
海 粉	3.3 (7)	1.8 (15)	2.2 (13)	2.7 (8)
化 粉	2.3 (9)	{ 5.2 (4)	0.6 (19)	0.5 (22)
醫 藥	4.3 (6)		4.3 (6)	4.3 (5)
裝 身	2.2 (10)	1.9 (13)	2.4 (9)	0.5 (21)
織 物	2.1 (11)	2.3 (10)	2.0 (10)	2.0 (15)
機 器	2.0 (12)	3.0 (7)	0.8 (16)	2.8 (10)
家 具	1.9 (13)	2.4 (9)	3.7 (7)	4.4 (4)

신 鐵 物	발 류	1.9(14)	3.1 (6)	2.0(11)	2.1(14)
燃 料	· 油 類	1.7(15)	2.7 (8)	2.0(12)	3.3 (8)
建 築 材	料	1.3(16)	2.1(11)	6.0 (3)	2.6(11)
家 禽 · 家 畜	畜 肉 類	1.1(17)	1.8(16)	—	—
化 學	製 品	1.0(18)	1.9(12)	1.9(13)	2.6(12)
時 裝	計 品	0.9(19)	1.2(18)	—	—
自 動 車	工 品	0.8(20)	1.8(14)	0.7(17)	1.4(16)
自 轉 車	突 突	0.6(21)	0.2(23)	—	—
寢 具	突 突	0.5(22)	1.8(17)	—	—
鞄 書	突 突	0.5(23)	0.7(19)	—	—
運 動	帶 物	0.4(24)	0.5(21)	—	—
眼 鏡	籍 物	0.4(25)	0.4(22)	0.5(20)	0.6(20)
玩 具	動 用	0.3(26)	4.5 (5)	0.7(18)	0.8(17)
寫 真 機	突 突	0.2(27)	0.6(20)	0.4(21)	0.6(19)
樂 器	突 突	0.2(28)	(時計에 包含)	0.2(23)	0.3(24)
		0.2(29)	(運動用具包含)	0.2(24)	0.4(23)
		0.1(30)	(時計에 包含)	0.3(22)	0.8(18)
		0.1(31)	0.2(24)	—	—

<附表 V> 產業細分類에 따른 年間販賣額의 順位

產業細分類	一般都賣業			
	年間販賣額構成比率(順位)			
	1968	1971	1976	1979
機械器具 (毛絲·羊毛) 絲(紗·亞·綿絲)	11.2 (1)	2.4(11)	9.4 (4)	5.7 (6)
水產	11.1 (2)	0.2(22)	1.1(17)	0.7(18)
燃料·油類	9.8 (3)	0.7(17)	2.5(11)	0.8(17)
化學製品	8.4 (4)	12.4 (3)	—	—
穀物	6.2 (5)	1.6(14)	4.3 (6)	15.3 (1)
建築材料	5.7 (6)	6.6 (4)	2.9(10)	0.8(16)
鐵物	5.7 (7)	19.7 (1)	12.2 (1)	5.8 (5)
衣類	5.7 (8)	2.0(12)	4.5 (5)	6.8 (4)
飲料	50 (9)	3.2(10)	3.2 (9)	4.7 (7)
(酒類)	4.6(10)	14.4 (2)	11.1 (3)	14.4 (3)
(清涼飲料)	(4.1)一	(13.2)	(10.2)	(12.8)(—)
織物類	(0.5)一	(1.2)	(1.1)	(1.6)(—)
醫藥品	4.3(11)	6.1 (7)	3.8 (8)	3.7 (9)
輸送用機器	3.7(12)	6.5 (5)	3.9 (7)	3.2(11)
蔬菜·果實	3.2(13)	1.6(15)	1.8(12)	3.0(12)
食品類	1.6(14)	0.5(20)	0.8(18)	4.1 (7)
紙·紙製品	1.5(15)	3.4 (9)	11.9 (2)	15.0 (2)
糖	1.2(16)	0.6(19)	1.8(13)	2.1(14)
신 발 류	12(17)	6.3 (6)	—	—
	1.2(18)	1.2(16)	1.2(16)	1.2(15)

化粧品	0.8(19)	0.3(21)	1.7(18)	2.3(13)
家具・建具・什器	0.7(20)	3.6(8)	1.4(15)	3.5(10)
装身具	0.5(21)	0.6(18)	0.5(19)	0.1(22)
调味料	0.4(22)	1.7(13)	—	—
家禽・家畜・肉類	0.1(23)	0.2(23)	0.4(20)	0.2(20)
運動用具	—	—	—	0.2(21)
書籍	—	—	—	0.5(19)

産業細分類	小賣業			
	年間販賣額構成比率(順位)			
	1968	1971	1976	1979
衣類	10.8(1)	20.1(1)	7.5(4)	10.9(3)
穀物	9.0(2)	2.5(13)	9.8(3)	6.8(5)
織物	8.4(3)	3.7(7)	3.5(7)	3.0(8)
食品類	8.2(4)	3.6(9)	20.3(1)	19.3(1)
醫藥品	5.7(5)	3.2(11)	7.5(4)	5.5(6)
機械器具	5.4(9)	11.3(2)	0.8(16)	0.9(18)
飲料品	4.8(7)	1.6(16)	3.1(8)	2.4(9)
家具・建具・什器	4.3(8)	3.7(8)	6.6(6)	12.2(2)
肉類	4.2(9)	1.5(18)	2.5(9)	3.7(7)
水產物	3.9(10)	2.9(12)	0.9(15)	1.8(14)
建築材料	3.3(11)	4.9(6)	—	—
燃料・油類	3.1(12)	8.0(4)	12.8(2)	9.1(4)
輸送用機器	3.1(13)	8.3(3)	—	2.4(10)
(自動車 品)	(2.9)	(2.6)	(—)	(—)
化學製品	3.0(14)	1.8(15)	—	—
鐵物類	2.8(15)	7.3(5)	1.8(10)	2.1(13)
蔬菜・果實	2.4(16)	0.8(21)	0.9(17)	2.2(11)
裝身具	2.2(17)	1.5(17)	1.0(13)	1.1(17)
文房具	2.2(18)	1.0(19)	1.5(11)	2.2(12)
신時計	2.0(19)	2.1(14)	1.5(12)	1.7(15)
化粧品	1.3(20)	1.0(20)	0.7(19)	1.5(16)
書籍	1.1(21)	0.5(23)	0.9(14)	0.7(20)
チヂ子	0.7(22)	0.7(22)	0.8(18)	0.8(19)
鞄・帶物	0.6(23)	0.4(24)	—	—
運動用具	0.6(24)	0.4(25)	0.4(20)	0.5(22)
工業品	0.3(25)	0.2(27)	0.3(21)	0.6(21)
眼鏡	0.3(26)	0.1(28)	—	—
寫真機	0.2(27)	0.3(26)	0.2(23)	0.3(24)
玩具	0.2(28)	3.4(10)	0.3(22)	0.5(23)
	0.2(29)	0.1(29)	0.1(24)	0.3(25)

〈附表 VI〉規模別 1店當業員1人當年間販賣額推移

(단위 : 1,000원)

規模別	一般販賣額												業務費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9	전기	증가	68	71	76	79	전기	증가	68	71	76	79	전기	증가	68	71	76	79	전기	증가
平均	13,734 (1.0)	25,436 (1.0)	120,861 (1.0)	161,583 (1.0)	28.4 %	75.0 %	11.2 %	3,000 (1.0)	6,811 (1.0)	26,138 (1.0)	33,027 (1.0)	42.3 %	56.8 %	8.8										
1~2人	4,844 (0.4)	10,962 (0.4)	33,854 (0.3)	41,048 (0.3)	42.1 %	41.8 %	7.1 %	2,398 (0.8)	6,410 (1.0)	21,016 (0.8)	23,473 (0.7)	59.2 %	45.6 %	3.9										
3~4人	8,373 (0.6)	17,735 (0.7)	69,242 (0.6)	77,679 (0.5)	37.3 %	58.1 %	4.1 %	2,325 (0.8)	5,308 (0.8)	20,700 (0.8)	22,793 (0.7)	42.8 %	58.0 %	3.4										
5~9人	19,618 (1.4)	44,973 (1.8)	185,608 (1.5)	176,825 (1.1)	42.8 %	62.5 %	-1.6 %	2,083 (1.0)	7,415 (1.2)	30,013 (1.1)	28,348 (0.9)	43.5 %	60.9 %	-1.8										
10人이상	116,481 (8.5)	192,347 (7.6)	708,655 (5.9)	1,026,963 (6.3)	21.7 %	53.7 %	15.0 %	4,137 (1.4)	8,747 (1.4)	29,123 (1.1)	46,359 (1.4)	37.1 %	46.6 %	19.7										
規模別	小販賣額												業務費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構成比						年平均增減率					
	68	71	76	79	전기	증가	68	71	76	79	전기	증가	68	71	76	79	전기	증가	68	71	76	79	전기	증가
平均	921 (1.0)	1,897 (1.0)	8,409 (1.0)	17,030 (1.0)	35.3 %	68.7 %	34.2 %	504 (1.0)	1,046 (1.0)	4,773 (1.0)	9,392 (1.0)	35.8 %	71.3 %	32.3										
12人	678 (0.7)	1,554 (0.8)	6,077 (0.7)	11,845 (0.7)	43.0 %	58.2 %	31.6 %	433 (0.9)	1,011 (1.0)	4,124 (1.0)	7,668 (0.9)	44.5 %	61.5 %	28.6										
3~4	2,058 (2.2)	3,465 (1.8)	17,840 (2.1)	35,916 (2.1)	22.8 %	3.0 %	33.8 %	618 (1.2)	1,071 (1.0)	5,547 (1.2)	11,140 (1.2)	4.4 %	83.6 %	33.6										
5~9	4,752 (5.2)	6,476 (3.4)	47,059 (5.6)	114,700 (6.7)	12.1 %	125.3 %	47.9 %	787 (1.6)	1,116 (1.1)	7,995 (1.7)	19,097 (2.0)	3.9 %	123.3 %	46.3										
10人이상	50,352 (54.6)	36,974 (19.5)	197,017 (23.4)	444,171 (26.1)	-8.9 %	86.6 %	41.8 %	3,062 (5.9)	2,319 (2.6)	9,581 (2.6)	24,536 (2.6)	-8.1 %	62.6 %	52.0										

註: 천 원 미만 척捨한. ()는 평균比率을 1.0으로 본 倍率임.

<附表 VII> 業種別 1店當 利潤貢獻推移

業種別 一般都賣業	1店當年間販賣額						1人當販賣額						年平均增加率 前 中 後	年平均增加率 前 中 後
	68	71	76	79	年平均增加率		68	71	76	79	3,027(1.0)	40.5	51.4	8.8
					前	中								
성우·제작·농·축·수·식·물·화·학·의·약·기·械·建·家·其·他·業	13,734	25,436	120,861	161,583(1.0)	28.4	75.0	11.2	3,306	7,326	26,138	3,027(1.0)	40.5	51.4	8.8
小計	921	1,897	8,409	17,030(1.0)	35.3	68.7	34.2	532	1,046	4,773	9,392(1.0)	32.2	71.3	32.3
衣服·織物·裝身品 食品·飲料·農畜·藥·化 水產·醫書·機械·建 織·文具·機器·器具 其·他·業	1,176 638 1,004 648 1,359 1,137 1,499 1,541 —	2,122 1,403 2,341 1,132 3,538 2,542 3,922 2,616 —	8,045 6,256 14,561 5,310 10,220 14,924 13,344 7,526 135,355(8.0)	17,627(1.0) 11,821(0.7) 22,242(1.3) 11,691(0.7) 22,453(1.3) 35,456(2.1) 58,320(3.4) 17,951(1.1) —	26.8 40.0 44.4 24.8 53.4 41.2 53.9 23.3 —	15.8 69.2 104.4 73.8 37.8 97.4 78.6 37.5 —	39.7 29.7 17.6 40.0 39.9 45.9 67.2 46.2 —	621 391 1,415 381 733 1,191 1,754 854 —	1,020 855 7,526 662 1,806 599 817 1,300 —	4,361 3,887 3,092 5,189 6,806 10,018 14,707(1.6) 4,032 —	9,904(1.1) 7,086(0.8) 11,804(1.3) 6,450(0.7) 11,357(1.2) 14,707(1.6) 23,952(2.6) 9,167(1.0) —	21.4 39.6 41.6 24.6 48.8 32.9 10,018 17.4 —	65.4 70.8 86.4 73.3 48.8 94.3 38.2 42.9 —	42.4 27.4 18.9 36.2 39.6 38.7 94.2 41.3 12.0

註: 천원미만 철거